

연구보고서  
2006-02

##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 문희철 · 정연정

연구보고서  
2006-02

##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06 · 10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89552-72-7 93030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연구보고서 2006-02

#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 문희철 · 정연정

# 발 간 사

지방화시대 지방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주역으로, 통상의 주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지방은 과거 국제무대에서 피동적인 객체로부터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국제교류의 주역으로 등장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수도에 있는 중앙정부나 외교관이 국제간 교류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세계화의 시대에는 주민의 일상 생활 그 자체가 국제적 삶과 연계되어 국제교류는 주민의 삶 그 자체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 문화 등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우리는 지방의 국제화를 외쳐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한 국제교류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인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여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역사가 일천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 연구는 세방화시대 우리 지역의 보다 나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국제교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충청남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성태규 연구위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웅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대상 및 연구방법 ..... 3
3. 선행연구 검토 ..... 3
4. 연구의 구성 ..... 4

##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논거

1. 자치단체의 여건변화 ..... 5
2.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목적 및 필요성 ..... 10
3. 국제교류의 유형 ..... 11

## 제 3 장 국내·외 국제교류 사례

1. 국내의 국제교류 사례 ..... 13
2. 외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사례 ..... 27
3. 국내·외 국제교류의 시사점 ..... 38

## 제 4 장 충청남도 국제교류 실태 및 문제점

1. 구조적 요소 ..... 40
2. 기능적 요소 ..... 43
3. 충청남도 국제교류 실태조사 ..... 55

## 제5장 충청남도 통상진흥시책의 실태 및 문제점

- 1. 충청남도 수출입동향 ..... 58
- 2. 통산진흥 실적과 평가 ..... 63
- 3. 시장다변화를 위한 BRICs 시장진출방안 ..... 8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국제교류 활성화의 기본 방향 ..... 94
- 2. 기본방향별 주요 시책 ..... 95
- 3. 통상교류 활성화 방안 ..... 97
- 4.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 99

## 참고문헌 ..... 100

## < 부록 1 >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 103

## < 부록 2 > 설문조사 ..... 113

## 표 제 목

|  |    |
|--|----|
| < 표 1 > 국제교류의 유형 .....                     | 12 |
| < 표 2 > 지역별 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 .....             | 14 |
| < 표 3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가별 자매결연 현황 .....       | 15 |
| < 표 4 > 시기별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체결 현황(광역/기초) ..... | 17 |
| < 표 5 > 안동시의 축제중심 문화교류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    | 21 |
| < 표 6 > 2004년 상반기 공동펀드 투자 기업내역 .....       | 23 |
| < 표 7 > 국제교류 관련 충청남도 부서 변천 .....           | 41 |
| < 표 8 > 해외 단체와의 교류실적 .....                 | 44 |
| < 표 9 > 자매결연단체 분야별 교류 실적 .....             | 45 |
| < 표 10 > 충청남도 청소년상호교환연수 현황 .....           | 46 |
| < 표 11 > 충남의 해외자치단체와 행정시책의견교환 현황 .....     | 47 |
| < 표 12 > 일본 구마토코현과의 세부 행정시책의견교환 현황 .....   | 47 |
| < 표 13 > 중국 허베이성과의 행정시책의견교환 현황 > .....     | 48 |
| < 표 14 > 충청남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결연 현황 .....      | 50 |
| < 표 15 > 충남 시·군의 해외 자매결연 현황 .....          | 51 |
| < 표 16 > 충남 시·군의 해외 우호협력 결연 현황 .....       | 52 |
| < 표 17 > 충청남도지역 수출입 현황 .....               | 58 |
| < 표 18 > 충청남도의 상위 10대 수출품목 .....           | 59 |
| < 표 19 > 충청남도의 산업별 수출 현황 .....             | 60 |
| < 표 20 > 충청남도의 수출국 현황 .....                | 60 |
| < 표 21 > 충청남도의 성질별 수입현황 .....              | 61 |
| < 표 22 > 충청남도의 10대 수입품목 현황 .....           | 62 |

|   |     |
|---|-----|
| < 표 23 > 충청남도의 수입국 현황 .....                       | 63  |
| < 표 24 > 충청남도의 2005년 해외시장 개척사업 .....              | 65  |
| < 표 25 > 2005년 충청남도 통상진흥 실적 .....                 | 65  |
| < 표 26 > 연도별 충청남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성과 .....              | 66  |
| < 표 27 > 충남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 66  |
| < 표 28 >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주요 기능 .....                   | 67  |
| < 표 29 > 2005년 충청남도 서울·해외무역관별 성과 .....            | 70  |
| < 표 30 > 충남 서울·해외무역관 실적 .....                     | 71  |
| < 표 31 > 충청남도의 2006년 주요 추진시책 .....                | 72  |
| < 표 32 > 충남공예품 미국 전시회 및 특판전 판매 및 상담현황 .....       | 75  |
| < 표 33 > BRICs 4개국의 면적, 인구 명목 GDP .....           | 83  |
| < 표 34 > 충남의 BRICs지역 수출액 .....                    | 85  |
| < 표 35 > 동경도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2003년, 동경도 조사) ..... | 110 |



## 그 립 제 목

|  |    |
|--|----|
| [그림 1]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               | 10 |
| [그림 2] 전주시의 문화교류의 구조 .....               | 19 |
| [그림 3] 오사카시 국제교류의 핵심요소와 특성 .....         | 32 |
| [그림 4] 중국 하얼빈시의 국제교류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   | 36 |
| [그림 5]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조직도 .....              | 67 |
| [그림 6] 2006년 충남 중소기업들의 수출관련 애로사항 .....   | 79 |
| [그림 7] 충남 중소기업들의 2007년 수출지원시책 참여의향 ..... | 80 |



#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의 시대이다. 시장경제논리의 확대에 따른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의 확대에 따라 국경과 주권에 근거한 근대적 국제질서가 변화되고 있다. 주권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제교류에서의 주요 행위자이었던 근대질서에서 이제는 국가와 국가, 지방과 지방 그리고 주민과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 국가 간 일방적 의존관계를 표현하던 “종속(dependency)”이라는 개념은 퇴색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국가간 쌍방간 상호협력을 의미하는 “상호의존(inter-dependent)”이 국제사회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교류는 국가와 국가간의 공식적인 외교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그리고 지역 주민간의 친선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분권에 따라 과거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는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과 도시정체성의 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즉 자매결연도시는 환경, 빈곤 등과 같은 전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상호교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매도시의 생활양식과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상호 증진시키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발전, 지역정체성 및 지역문화의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나 중앙정부가 전담하던 것처럼 보여지던 과업들이 왜 지방의 업무로 전환되고 있는가?

이는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국가 사이의 경계가 얇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경이라는 장벽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무국경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지역은 그

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지방과 도시들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국제무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주체는 지역과 지역이 되었고, 여기서 지방의 국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도에 있는 중앙 정부나 외교관이 국제간 교류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는 UR와 같은 다자간 국제협상이 상징하는 것처럼 외교관이나 기업 등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교류차원을 넘어 주민의 일상 생활 그 자체가 국제화의 열풍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모든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즉 단순한 선이 아닌, 면의 국제교류 내지는 전면분산형 국제교류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화시대에는 일반 주민이 그 주역이 되었고, 이에 대한 서비스는 그 면을 관장하여 경영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2006년 현재 6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9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 시군의 경우 11개 시군이 4개국 2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경제통상 차원에서 충남은 뉴욕무역관(1997년), 구마모토사무소(1998년), 상해무역관(1999년) 등 3개의 해외 사무소를 운용하여 국제통상진흥을 꾀하고 있다. 해외사무소는 전문박람회 대행 참가 등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지원하여 33만9천불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가 급증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계화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추진체계와 조직 그리고 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반성과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 세계화시대 충남은 교류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국제교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 편중된 지역교류를 다변화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통상진흥 시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상품 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국제교류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있는 지역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는 충청남도를, 2차적으로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영역은 국제교류의 전 분야를 포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case study로 충청남도 국제통상과를 선정하여 국제교류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를 연구하였다. 실증분석은 사례연구로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가운데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충청남도 국제교류의 성과와 특성분석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통계연보, 국제통상과의 주요 통계지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가 발행한 제2차 통계자료,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 및 연구, 그리고 설문조사 및 담당자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국제교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공무원을 초점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11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sup>1)</sup>

## 3. 선행연구 검토

지자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지자체의 국제교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분석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자매결연, 공무원 해외연수, 문화교류, 민간교류, 행정교류 분야에서의 국제교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로는 김판석(2000), 신기현(2001), 이은재 외(1990), 이정주 외(2001), 이정주 외(2003), 엄운섭(2002)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제교류분야 가운데 통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의 국제교류실태를 분석한 연구로는 윤영득 외(1997), 정대철(2004), 최근배 외(1996), 김주완(2002), 박경국 외(2002) 등이 있다.

분석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최승업(1999), 부산대도시권 중심의

---

1) 본 설문조사는 통계상의 유의미를 찾기 위해서 실시하였다고 보다는 실무차원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초점부서에 대한 case stud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윤영득 외(1997),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최근배(1996),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김주완(2002), 충북을 중심으로 한 박경국·박종은(2002)의 연구 등이 있다. 이외의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세부분은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1장과 2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활성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변화,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국제교류의 유형을 인력교류, 통상교류, 문화교류로 분류하여, 후속 장에서 실태와 문제점 분석의 준거틀로 활용하였다. 3장과 4장의 둘째 부분에서는 충청남도 국제교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국제교류의 범주에는 일반적으로 국제통상이 포함되지만, 국제통상의 범위가 광범위함으로 국제교류와는 별도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정책건의에 해당되는 셋째 부분에서는 실태 및 문제점에서 거론된 개선방안을 종합 정리하고, 충남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이론적 논거

### 1. 자치단체의 여건변화

#### 1)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대한 적극성은 우선 국제적 환경변화와 관련된다. 최근 국제정치·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이다. 상호의존성의 증대, 경제적 경쟁의 심화 등을 특성으로 하는 세계화(Globalization)<sup>2)</sup>의 조류가 그것이다. 상품, 노동력, 서비스, 자본, 기술 등은 이제 국경의 개념을 넘어서 이동하여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시대로 이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그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무역체제(WTO)을 통해 시장압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들은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국가 전 구성원들의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주민의 생활조건에 직접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입이 불가피한 것이다. 종전처럼 제도적 측면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서는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까지 받게 된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Goldsmith 1990).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인 것이다.

물론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는 이유를 세계화에서 찾아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의 성공을 위해서도 세계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경동 1994, 75; 지병문 1994, 54). 지방

---

2) Globalization은 국제화·세계화·지구촌화 등 다양하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정치·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과 영향과 작용이 증대해 가는 과정과 그 결과로서 이해하고 세계화라는 용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고자 한다(McGrew 1992, 318~320)

정부의 국제활동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그것의 추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세계화시대에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의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문장순 1999, 59-61)

첫째, 세계화에 적응이나 대응이 지방정부나 민간단위 수준에서 훨씬 용이하다는 점이다. 자본, 생산, 경영, 노동, 기술, 정보 등이 국경의 영역을 초월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지닌 국가 중심의 대응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국가에 비해 세계화의 조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경쟁력도 지닐 수 있다(금성근 1992; 김상영 1994; 지병문 1994; Clarke 1993; Stohr 1990). 그래서 정책수준(Government to Government)보다는 기업수준(Business to Business), 개인수준(Person to Person)의 교류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개인수준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체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지방레벨(Local to Local)교류가 된다. 지방수준에서도 지방정부가 지방내의 기업과 개인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그들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국제교류에서 중심적 역할이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지방레벨의 교류 중에서도 오늘날 도시 대 도시(City to City)의 교류가 국제교류의 중심적 위치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화가 지방정부의 위상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세계화를 가져온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정보통신의 발달이다. 정보화 자체가 상호의존과 교섭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보화의 보편화가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지방과 지방,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여 상호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Dicken 1991). 즉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가 정보체계로부터 소외되었던 지방과 개인을 끌어들이므로써 중앙과 지방, 개인과 개인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율성확보가 바로 국제교류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한다. 특히 지방 가운데서도 정보화의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지방군(이각범 1995, 15)이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가 변화된 세계산업구조에 적응력이 높다는 점이다. 세계산업구조는 기계화된 대량생산체제에서 기술과 정보가 가미된 유연성을 지닌 산업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래서 생산방식도 전국적인 획일화된 생산보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



술집약적 산업에 의한 생산으로 점차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생산방식이 공간적·기능적 경직성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권태준 1995, 262). 이러한 변화는 국가보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응 능력이 높다. 개별지방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상품생산을 통해 세계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며 고유한 문물을 가지고 외국의 파트너와 상대한다는 국제교류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가 중앙보다는 지방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고 나아가서 세계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지방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세계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체제로 지방의 편입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활동의 영역이 특정지방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단위로 기업활동영역을 찾는 것 보다 이윤추구의 구체적 대상인 지역의 중심도시를 선택하여 생산,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은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전초기지(global outpost)로서의 역할이나 적어도 세계적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되는 것이다. 정보화로 인해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에 공간적 거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이다. 이는 세계적 기업들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지방, 특히 대도시들의 경우는 오히려 전초기지가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위해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을 고급화하려는 경우도 있다(권태준, 271). 여하튼 초국가적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지방을 세계적으로 이끌어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Feagin and Smith 1987). 지방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가운데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자로서 위치가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지방이 국제활동영역에서 점차 주체적 세력으로의 등장을 요청하고 있고 지방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입장이다. 대외적 측면에서 지방의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제교류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도 종전처럼 의례적이고 단순한 친선의 성격을 벗어나 보다 지방의 생존을 모색하는 현실적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가 경제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그 방식도 다자간의 교류라는 양상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다.

## 2) 지방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를 유도한 또 하나의 환경적 변수가 지방화이다. 세계화의 조류가 지방의 위상을 변화시켰다면 지방화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를 촉진시키는 양대 축이 되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지방자치 그 자체는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를 의미하며(Smith 1987, 1~2) 지방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오연천 1995, 61).

지방화는 이같은 분권화를 기초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당지역이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민생화의 측면을 포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원화·고유화라는 사회·문화적 가치도 내포하는 포괄적 개념인 것이다. 즉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권력의 분권화를 의미하고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육성·발전을 지방정부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홍표 1994, 3).

지방화 내지 지방분권화는 세계적 추세라 할 정도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다(Smith 1985, 3; Elazar 1987, 201). 지방분권화의 경험이 익숙한 서구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중반이후 복지국가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방정부의 구조를 재편성해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고,<sup>3)</sup> 아직 지방자치에 익숙하지 못한 국가들조차도 지방화를 추진하지 않고는 국가성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 만큼 지방화는 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인 동시에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든 이제 갓 출발한 국가이든 간에 분권화의 지향 이유가 경제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치선진국들은 증대되는 관료제의 문제, 그로 인한 지방의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 등으로 인해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분할을 실시하는데 주로 지방경제 활성화 부분과 관련되고(Eisenschitz 1993,

3) 서구국가들의 지방화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발전 지향이 오히려 각종 문제점을 발생시켜 국가내 내부적인 비효율성을 분만 아니라 변화해가는 세계경제체제에 적응해 가는데도 지방정부가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추진된 결과이다. 지방화와 세계화가 불가분의 관계를 전제한다면 서구국가들의 지방정부는 WTO의 성립이 후가 아니라 '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세계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봐야 한다(Howells and Wood 1993).

12~15), 지방자치에 익숙하지 못한 아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분권화 현상은 지역불균등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했다는 측면에서 이를 알 수 있다(김장권 1994, 586).

따라서 지방화 시대 지방정부의 가장 우선적 역할은 지역적 조건에 적합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에 두어야 한다. 지방의 구성원들이 보다 높은 질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김경동 1994, 74). 이제 지역발전은 종래 처럼 폐쇄적인 지방경제의 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편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의 시대에 지방은 국가의 한 구성단위로서의 지방이 아니라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세계의 변화가 바로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의 방안을 국가단위에서만 찾는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방정부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며<sup>4)</sup> 그것은 지방정부가 지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나타낸다.<sup>5)</sup>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구해야할 일은 지역산업의 국내·외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여기서 지방정부가 국제교류를 수행해야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는 자본, 기술, 인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산업의 기술을 고도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저가격·고품질의 제품과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지방고유의 문화적 특성, 지역의 독창성, 향토성 등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정세욱 1995, 6~7).<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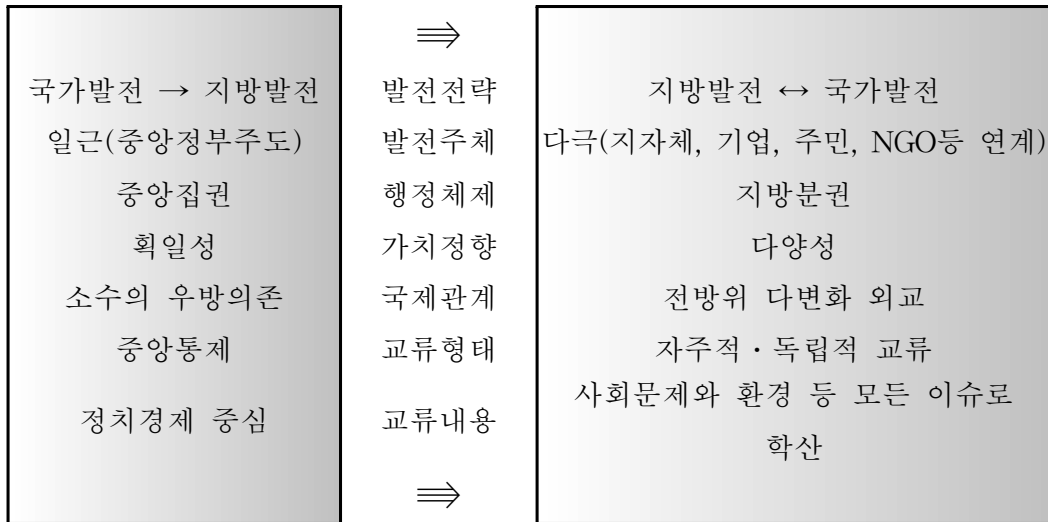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단순 집행·집합적 소비의 유지·관리차원의 역할로는 지방의 수요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기업가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방정부간의 경쟁 유발요인이 되고 활동영역을 국제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된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화 시대의 역할변화 요청과 함께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국제교류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

4) 1995년 7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1994년도 지역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지방경쟁력을 분석하면서 현재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경쟁력 강화로 규정짓고, 지방경쟁력의 개념을 한 지역의 정부·기업·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통태적 역량의 내부효율과 외연에 관한 상대적 비교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화 추진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정진호 1995).

5) 실제로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의 국가들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구했고 특히 지방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게 된다. 이후 지역복지를 중요기능으로 수행하던 지방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역할 범위도 넓어지고 중앙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위상도 강화된다(Nanetti 1988, 5~6).

6) 이러한 사례는 일본의 오이타현의 각 마을마다 1개의 상품을 개발하는 “一村一品운동”, 미국의 “one village, one product” 등이 있다.



[그림 1]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2.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목적 및 필요성

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는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과 도시정체성의 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즉 자매결연도시는 환경, 빈곤 등과 같은 전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상호 교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매도시의 생활양식과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상호 증진시키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발전, 지역정체성 및 지역문화의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는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지방기업의 차원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선진행정기술의 도입과 지역공무원의 행정능력의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

행정체제를 갖추어 동시에 경제교류 협정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경제통상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제교류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제화와 비교하여 자치단체의 국제화가 지니는 일반적 특징은 첫째, 자치단체 주도 국제화의 구체적 과제 또는 목표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반 대책과 이를 담당할 인재발굴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다면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종래의 중앙집권시스템을 지역 차원에서부터 변화시키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행정분야에서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문화가 다른 다양한 민족과의 교류를 매개로 지역주민의 국제이해와 국제의식이 함양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 중에는 국제교류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방식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존재방식을 바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개발정책에 맹목적으로 따라온 지역사회들이 지역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미래전략을 스스로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국제화는 바로 그러한 변화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3. 국제교류의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유형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영역간에 상호복합적인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가 있을 수 있고, 기능별, 목적별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국제교류 유형을 달리 분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류는 국제교류의 영역에 따른 것으로 다음에 제시한 것은 편의상 영역별로 구분한 것이며 서로 배타적인 형태는 아니다.

첫째, 파견, 시찰, 연수 등 인력교류 분야이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양측의 직원을 교류함으로써 인력개발과 상호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형태이다. 특히 각 국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의 습득, 우수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지방공공분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정부간 인력교류는 선진행정제도와 행정관리를 배우고 습득함으로써 자국의 행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교류형태이다. 그 외 체육교류, 상징사업의 추진 등을 국제교류의 일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교류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상설전시장 설치,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외국투자유치, 해외시장조사와 시장개척설명회 개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역별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시장 동향설명회,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동포 무역 주재관의 운영, 기업의 수출입 대행 및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전담할 전문 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사업도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공연, 축제, 전시회, 친선경기, 공원조성이나 거리명명 등 문화분야에서의 국제교류이다. 이는 주로 지역내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류로써 문화, 예술, 스포츠, 생활양식 등의 동질성과 이질성 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표 1 〉 국제교류의 유형

| 구 분    | 교류 내용  |
|--------|--|
| 인력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교류(파견, 시찰, 연수 등)</li> <li>-청소년 교류(유학생, 해외연수생 파견 등)</li> <li>-기술교류(농업, 경영기술단파견, 해외기술연구조사 연구자 교류 등)</li> <li>-교류교육(외국인 연구생 접수,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li> <li>-학술교류(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개최, 조사·자료·정보수집 등)</li> </ul> |
| 경제통상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시장 등을 위한 시찰단 파견, 무역박람회 개최</li> <li>-해외경제우호단의 파견 및 외자계 기업의 유치(수출·판로의 개척)</li> <li>-수출 상시전시관 설치·운영, 자치단체간 특산물교류</li> </ul>   |
| 문화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창단원의 공연, 연극, 시찰단, 조사단의 파견, 회화전, 공예전 등</li> <li>-스포츠교류(국제경기대회, 교류시합, 스포츠지도자 초청)</li> </ul>   |

## 제 3 장 국내·외 국제교류 사례

### 1. 국내의 국제교류 사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구체적으로 도시 간 자매결연, 우호 교류협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417건 가운데 247건으로 60%이상이 지방정부 주도의 정부간 교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교류와 정부간 교류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심익섭, 2006).

#### 1) 국내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현황

국내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별 지역 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총 16개 광역자치단체는 해외 34개국 141개 도시의 민간, 기관과 자매결연 형태로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체 46개국 368개 도시와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교류를 실행하고 있다. 자매결연 국가수로 보면 경기도가 25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포괄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외 도시정부의 수도 9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지역 내에서는 중국(165개 도시), 일본(79개)이 가장 많고, 유럽지역의 경우는 러시아(16개 도시), 북아메리카는 미국(87개 도시), 라틴아메리카는 멕시코(10개 도시), 오세아니아의 경우 호주(15개 도시),

아프리카는 남아공화국(3개 도시)에 분포되어 있다.<표 3> 참조) 모든 지역을 통틀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경우 중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가장 많이 맺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총 131개가 중국의 개별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개별 도시들과 1개 이상의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모든 지역의 국가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표 2 〉 지역별 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

| 지역 | 구분( )은 단체수 | 결연대상 |      | 자치단체별 소계    |
|----|------------|------|------|-------------|
|    |            | 외국국가 | 외국도시 |             |
| 서울 | 광역(1)      | 18   | 19   | 24개국 88개 도시 |
|    | 기초(25)     | 17   | 69   |             |
| 부산 | 광역(1)      | 16   | 16   | 16개국 29개 도시 |
|    | 기초(11)     | 4    | 13   |             |
| 대구 | 광역(1)      | 8    | 8    | 9개국 13개 도시  |
|    | 기초(5)      | 3    | 5    |             |
| 인천 | 광역(1)      | 7    | 10   | 7개국 17개 도시  |
|    | 기초(6)      | 2    | 7    |             |
| 광주 | 광역(1)      | 5    | 5    | 5개국 8개 도시   |
|    | 기초(3)      | 1    | 3    |             |
| 대전 | 광역(1)      | 10   | 10   | 11개국 14개 도시 |
|    | 기초(3)      | 2    | 4    |             |
| 울산 | 광역(1)      | 7    | 7    | 7개국 7개 도시   |
|    | 기초(0)      | 0    | 0    |             |
| 경기 | 광역(1)      | 14   | 18   | 25개국 96개 도시 |
|    | 기초(28)     | 22   | 78   |             |
| 강원 | 광역(1)      | 6    | 6    | 10개국 39개 도시 |
|    | 기초(12)     | 9    | 33   |             |
| 충북 | 광역(1)      | 6    | 6    | 7개국 15개 도시  |
|    | 기초(7)      | 4    | 9    |             |
| 충남 | 광역(1)      | 6    | 6    | 8개국 25개 도시  |
|    | 기초(11)     | 4    | 19   |             |
| 전북 | 광역(1)      | 3    | 4    | 6개국 21개 도시  |
|    | 기초(8)      | 6    | 17   |             |
| 전남 | 광역(1)      | 2    | 3    | 9개국 29개 도시  |
|    | 기초(15)     | 9    | 26   |             |
| 경북 | 광역(1)      | 8    | 36   | 14개국 46개 도시 |
|    | 기초(14)     | 10   | 10   |             |



|    |         |    |     |              |
|----|---------|----|-----|--------------|
| 경남 | 광역시(1)  | 10 | 10  | 14개국 49개 도시  |
|    | 기초(15)  | 10 | 39  |              |
| 제주 | 광역시(1)  | 4  | 4   | 6개국 14개 도시   |
|    | 기초(4)   | 4  | 10  |              |
| 계  | 광역시(16) | 34 | 141 | 46개국 509개 도시 |
|    | 기초(167) | 46 | 368 |              |

※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매결연현황, 실시간 업데이트, <http://www.klarfir.or.kr>

〈 표 3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가별 자매결연 현황

| 지역  | 자매결연 국가 및 결연수                                | 국내결연 광역자치단체 및 단체 수  |
|-----|--|---|
|     |  | 국내결연 기초자치단체 및 단체 수  |
| 유럽  | 러시아(16)                                      | 서울,부산,대전,강원,충남,충북,경남,제주(8)<br>서울서초,경기수원,안양,부천,강원동해,경남마산(6)  |
|     | 터키(7)  | 서울,부산,울산,경북(4)<br>서울광진,경기수원,용인(3)   |
|     | 프랑스(6)                                       | 서울,경북(2)<br>서울구로,강원홍천,경북경주,제주제주시(4)   |
|     | 카자흐스탄(5)                                     | 서울,대구(2개)<br>서울중구,송파구,경북구미(3)   |
|     | 네델란드, 스페인(4)                                 | 경기,부산,경북(3)<br>전남강진,경북구미,서울강동(3)  |
|     | 독일, 폴란드(3)                                   | 서울,충남,경남(3)<br>경기광명,전남무안,경남남해(3)  |
|     |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2)                             | 서울,경기,대전,경남(4)<br>경기남양주(1)  |
|     | 노르웨이, 덴마크, 루마니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1) | 전북,대전,대구(3)<br>서울용산,전남목포,경기수원,전남광양(4)   |
| 아시아 | 중국(165)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14)<br>서울기초(23),부산기초(9),대구기초(3),인천기초(5),광주기초(3),대전기초(3),경기기초(22),강원기초(9),충북기초(3),충남기초(7),전북기초(7),전남기초(11),경북기초(13),경남기초(10),제주기초(3) |
|     | 일본(79)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13)  |

|        |                  |  |
|--------|------------------|--|
|        |                  | 서울기초(5),경기기초(8),강원기초(8),충북기초(4),충남기초(4),전북기초(2),전남기초(4),경북기초(8),경남기초(10),제주기초(4)   |
|        | 베트남(17)          |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경북,경남(7)<br>서울용산,인천계양,경기수원,남양주,오산,양주,경남창원,마산,김해(9)  |
|        | 인도네시아(10)        | 서울,부산,광주,충북,경북,경남,제주(7)<br>서울강북,부산수영,경기수원(3)   |
|        | 대만, 몽골, 필리핀(8)   | 서울,부산,광주,울산,경기,경남(6)<br>서울종로·,중구·광진·동작·강동,경기안성,평택,대전중구,강원태백,충북충주,경북구미,경남마산,전남여수,함평(14)   |
|        | 인도(4)            | 경기수원,전북군산,경남김해(3)  |
|        | 이스라엘(1)          | 인천(1)  |
| 북아메리카  | 미국(87)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br>서울기초(8),경기기초(16),강원기초(6),충북기초(7),충남기초(5),전북기초(4),전남기초(3),경북기초(5),경남기초(8),제주기초(1) |
|        | 캐나다(8)           | 부산,대전,강원(3),<br>경기과천,군포,강원화천,전북군산,경남진주(4)  |
| 라틴아메리카 | 멕시코(10)          | 서울,부산,대전,경기,충북,충남,경남(7)<br>경기수원,안양,전남여수,경북구미(4)  |
|        | 브라질(6)           | 서울,부산,대구,울산(4)<br>경기성남,안양(2)   |
|        | 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2) | 부산,경기,충북,충남(4)<br>서울송파,경남김해(2)   |
|        | 콜롬비아, 파나마(1)     | 서울,인천(2)   |
| 오세아니아  | 호주(15)           | 서울,부산,대전,경기,충남(5)<br>서울기초(5),부산기초(1),경기기초(2),대구기초(1),강원기초(1)   |
|        | 뉴질랜드(2)          | 부산(1),서울송파(1)  |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공화국(3)     | 부산,경기,경북(3)  |
|        | 이집트(2)           | 서울,인천(2)   |
|        | 모로코, 에디오피아(1)    | 경기수원,강원춘천(2)   |

※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매결연현황, 실시간 업데이트,  
<http://www.klarfir.or.kr>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우리 지방정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는 아래 <표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는 민선 1기가 시작된 1995년을 기점으로 자치단체들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발전 프로그램들이 급증하게 되고, 이러한 자율적인 자치단체의 세계적 수준의 능력과 개발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1990년대에 극적으로 증가한 전체 자매결연 건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혁신사업이 중앙정부의 분권과 지역경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전개됨으로써 지역의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형식적, 무차별적인 지역정부간 자매결연의 실효성(feasibility)문제가 자치단체별로 제기되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고, 형식적인 자매결연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민간교류의 내용으로 질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자매결연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4 〉 시기별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체결 현황(광역/기초)

| 시기(년대) | 결연건수    | 소계  |
|--------|---------|-----|
| 1960년대 | 광역: 6   | 10  |
|        | 기초: 4   |     |
| 1970년대 | 광역: 12  | 18  |
|        | 기초: 6   |     |
| 1980년대 | 광역: 22  | 58  |
|        | 기초: 36  |     |
| 1990년대 | 광역: 76  | 267 |
|        | 기초: 191 |     |
| 2000년대 | 광역: 31  | 156 |
|        | 기초: 125 |     |

## 2) 국내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사례

우리나라 지역정부의 국제교류는 단순한 정부간 자매결연 형태를 극복하고 다양한 요소들로 변화·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발전되는 형태는 크게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정부간 교류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개별 지역 내의 다양한 민간집단이나 민간인들의 문화 및 기타 관련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단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와 둘째, 최근 그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경제교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교류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자매결연된 해외 도시의 다양한 주체들과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자치단체들 간의 공무원 연수기회 및 연수내용을 통해 도시정부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3가지 형태로 전개되어 온 국내 지역정부의 해외교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1) 민간 문화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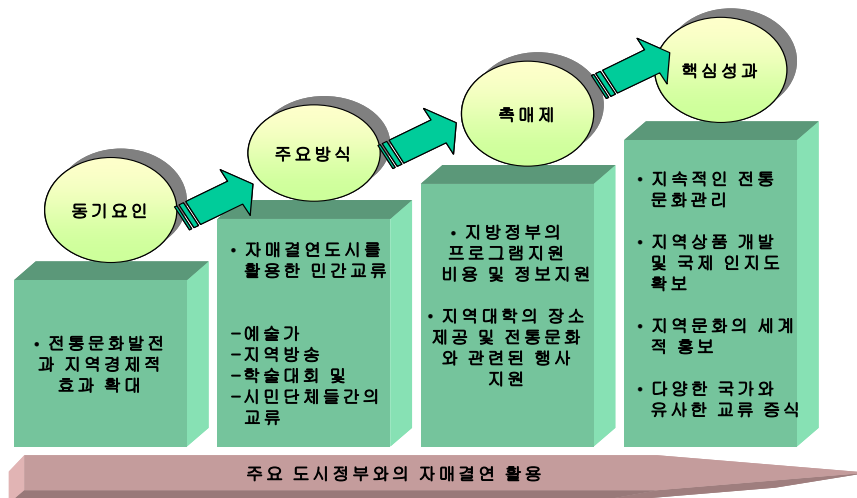
#### ① 전라북도 전주시 문화교류: 국제조직과 자매결연을 활용한 문화교류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해외교류는 2006년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대통령상)로 선정될 만큼 국내 지역의 해외 지역과의 민간교류 분야에서 매우 뚜렷한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전주시의 문화교류는 한옥과 한지와 같은 전통문화자산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다. 전주시의 문화교류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은 시민문화단체들을 통한 한지의 세계화와 관련된다. 전주시는 1986년 설립된 종이관련 국제조직인 세계종이작가협회(이하 이아프마: The Paper Artists)와 접촉을 시도하면서, 2004년 본 협회회의 국제회의를 전주에서 유치하고 이아프마와 전주종이문화축제를 통한 한지교류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특히 이아프마 조직의 핵심 참여자인 유럽의 예술가들에게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게 하고, 이들이 직접 전주를 방문하여 사군자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적 자원들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문화적 교류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의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와의 교류과정에서도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문화교류를 수행하게 되는데, 전주에 한지가 있다면 가나자와에는 화지가 있고, 전주에 판소리가 있다면 가나자와에는 노라는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어, 양 지역은 문화적 교류의 공통적 기반을 충분히 갖고 있다. 전주는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여 가나자와시와 전주시가 활발한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방송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상대방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타리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방송함으로써 양 지역을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와 가나자와시의 민간교류는 꾸준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주한지문화진흥원과 가나자와화지작가들과의 교류, 전주 판소리와 가나자와 노카구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시는 전주의 전통문화를 자매결연된 도시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시를 활용하여 일본 전역에 홍보하는 전략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전주내의 다양한 시민단체의 민간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들이 문화적 교류를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과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시문화 탐방, 국제학술대회 및 일본인 문화예술관계자 전주 전통문화체험, 국제노동재단 전통문화 팸투어, 해외교포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인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전주의 전통문화를 일본, 베트남, 몽골 등지에 홍보하고 알리는 교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림 2] 전주시의 문화교류의 구조

전주시의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교류를 단순한 형식적 차원의 소통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류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전통문화 유지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흡수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전통문화발전계획 등을 계속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즉 이는 민간교류가 지역행정 및 발전에 기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전주시의 경우 단순한 자매결연 방식의 교류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자매결연 도시를 민간교류를 위한 핵심 모티브(motive)로 활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원을 매개로 한 문화상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② 경상북도 안동시-지역축제를 활용한 문화교류

경상북도 안동시는 2005년 지방 국제화 우수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민간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모범사례로 여겨져 왔다. 유교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안동시는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통해 형식적인 국제교류를 탈피함으로써 민간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양식의 국제교류를 지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가 큰 사례이기도 하다.

안동시는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례예술촌 등 10개의 문화재 유적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2만 7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중앙정부의 문화재지원 국비보조를 받아 고택관리는 물론 문화재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도시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민간과 협조하여 자매교류지인 일본과 중국도시를 직접 순회하며 탈춤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전국 최초로 PDA(Personal Digital Aids)를 통한 축제 생중계는 물론 인터넷 2개 채널, 7개의 생중계 채널을 확보하고 아리랑TV의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를 국제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대사등 대사관 직원, 유엔전문기자단 등을 직접 초청하여 안동시의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안동시의 이러한 교류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관주도의 교류에서 민간체제로의 교류로 과감하게 전환하였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봉사, 축제초기부터 대학연구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 2개국에서 16회에 걸친 설명회를 준비하고, 해외 지역도시를 순회하면서 본 축제를 홍보하여 지역의 민간교류(문화교류)의 장을 확대시켜 왔다. 특히 본 교류과정에 지역내외의 160여개의 문화시민단체들을 참여시키고, 안동민속축제와 탈춤축제를 병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지역으로 유인하는데 성

공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문화교류를 통해 안동시는 <표5>에서와 같이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부가가치 효과 등에 있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소득유발효과 뿐만 아니라 고용 효과 역시 상승하고 있어, 문화교류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표 5 〉 안동시의 축제중심 문화교류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단위: 천원)

| 구 분      | 2003년      | 2004년      | 증 감 율 (%) |
|----------|------------|------------|-----------|
| 생산유발효과   | 11,805,223 | 19,092,607 | 61.7      |
| 부가가치유발효과 | 5,682,517  | 9,095,844  | 60.1      |
| 소득유발효과   | 2,768,302  | 4,344,754  | 56.9      |
| 취업유발효과   | 308        | 512        | 66.2      |
| 고용유발효과   | 140        | 230        | 64.3      |

※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 『월간 지방의 국제화』, 2005.11월.

### ③ 청소년 국제교류 - 경기도 부천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Home Stay)

부천시는 2000년부터 자체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해외도시 청소년의 공동체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 왔다. 부천시의 자매결연 도시이기도 한 일본의 오카야마시 청소년과 부천시내의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영어캠프를 실시함으로써 한국무용, 태권도, 도예체험 등 한국 문화를 일본에 홍보하여 한국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의 위해시 청소년들이 홈스테이를 직접 신청하여 참여할 정도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다.

부천시 지방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지방정부간의 공식적인 교류에서 수요자중심의 민간교류의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해외에 알리고, 타 국가 문화를 체득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가정으로 해외 청소년을

초청함으로써 한국의 가족문화, 예절교육 등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고, 관련 국가들 간의 정서적 연대감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문화 교류와 같이 지역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나, 지역단위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이를 통해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민간교류의 정서적 측면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바로 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교류 프로그램은 최근에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하여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경색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일본 청소년들이 직접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득하는 외교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있다.

## (2) 경제교류

지방화, 세계화 시대의 지역의 교류는 다양한 문화 및 기술, 인적 교류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역간의 경제교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의 지역간 경제거래 및 교류는 중앙의 수출 및 수입지원 기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류의 형태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거나, 지역경제에 적합한 경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접 해외국가에 시장파견단을 파견하고, 이를 통해 경제교류가 가능한 해외국가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교류의 내용 역시 지역의 토속상품 및 지역의 토착산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역경제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자매결연의 단계를 극복하고 지역은 지역 스스로가 생산하는 상품과 자본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부가가치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지역의 경제교류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 ① 경기도 지원의 지역중소기업 교류 및 지역경제 교류

경기도는 중국의 광동성과 다양한 형태의 경제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지역의 대표기업인들의 연수교류 뿐만 아니라 양 도시간의 지역 중소기업 펀드를 형성하는 것이 대표적인 교



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기도는 중국 광둥성의 대표 국유기업 CEO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수요를 해외지역에 알리고, 광둥성의 기업인은 물론 경기도내의 다양한 지역기업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경기도는 광둥성의 도로, 석유화학, 전력, 자산관리, 투자 소비재 분야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지역기업 최고경영자를 2004년부터 국내로 초청하여 광둥성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인과 광둥성 기업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경기도와 광둥성의 지역기업인 교류연수는 본 연수에 참여했던 중국 지역기업인의 경기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수에 참여한 CEO들의 98%이상이 경기도와의 경제교류를 희망하게 되었다는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와 광둥성의 지역 기업인간의 교류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대한 국제적 홍보, 관련 투자 및 거래 유치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형태에 근거하여 최근 양도시는 지역기업펀드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른바 경기도-광둥성 중소기업협력펀드를 조성하는데 이르렀다. 중소기업협력펀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되며, 총 2000만 달러(경기도 1000만 달러, 광둥성 1000만 달러) 규모로 동양창투와 광둥벤처캐피탈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

〈 표 6 〉 2004년 상반기 공동펀드 투자 기업내역

(단위: 백만원)

| 업체명    | 소재지 | 설립년도  | 주요제품     | 투자일       | 투자액   |
|--------|-----|-------|----------|-----------|-------|
| (주)파트론 | 화성  | 03.01 | 유전체 부품   | 2004.4.22 | 1,000 |
| (주)엠엘티 | 오산  | 97.05 | 이방성도전 필름 | 2004.6.16 | 5,000 |

※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월간 지방의 국제화』, 2004.10.

### (3) 교육 및 연수교류-공무원 국제화 능력 배양 교육

#### ① 칠곡군 도농복합형 자족도시를 위한 공무원 벤치마킹 연수

기존의 지방 공무원 해외연수는 자매결연 도시를 여행하는 형태의 연수 및 교육 형태가 주

를 이루어 ‘관광성’, ‘위로여행성’ 시비가 존재해 왔다. 그 이유는 해외 연수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know-how)의 부족, 현지사정에 대한 정보부족, 업무와의 낮은 관련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제적인 지역자치단체 업무와 연계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중 경북 칠곡군의 자치경영 해외 특별연수이다. 이는 연수대상 자치단체와 시찰기관간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내용과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해외 연수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칠곡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도농복합형 자족도시), 효과적인 지역행정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개발 연수,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시책개발 및 경영 마인드 함양, 관련 현안과제를 해결한 선진사례를 통한 행정수요 예측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칠곡군과 지역적, 환경적 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후나바시시, 아비코시의 지역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방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농업지역의 활성화 성공사례로서 일본의 오부세초시를 방문하기도 했다.

칠곡군의 지방공무원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비슷한 조건과 발전경로를 갖고 있는 사례지역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선택하고, 실제 지역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내용에 따른 현장체험적 교육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실효성 중심의 해외연수에 대한 해당기관 공무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고, 특히 벤치마킹 대상 지역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복합형 행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도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본 연수의 현지강사들도 현지 전문가, 행정실무자,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공무원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② 지역공무원 국제화 능력 배양 - 서울 중구청 영자신문 발간 사례

직접적인 교육이나 연수과제를 통해 지역의 교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세계화 시대의 지역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실 있는 공무원 국제화 교육도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외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국제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더욱 더 다양화되고 있다. 즉 이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학습과정에서 산출한 내용물들을 해외 자매도시나 지역에 배

포함으로써 지역 공무원의 국제적 능력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국제적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발간하고 있는 ‘주주구구 헤럴드’이다. 본 영자신문은 주주구구라는 중구청 공무원들의 영어학습조직인데, 이러한 학습조직의 구성원들이 직접 외부 자문가의 의뢰를 받아 지역행정을 알리는 영자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신입 공무원들의 업무비전을 반영하는 칼럼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치단체 지역문화와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신문 기사로 다룸으로써 자치단체의 해외 홍보는 물론 내부 공무원들의 영어 작문 실력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주구구 헤럴드’ 출간 초기에는 500부 정도 발행하는 소규모 영자신문이었으나, 최근에는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1000부까지 발행부수를 늘리고, 발송처도 국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 배포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업무 기사를 영문으로 작성한다는 교육적 의미도 있으나, 지역행정의 다양한 요소들을 해외 자치단체관련 공무원들에게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국제 교류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구청은 영자신문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 외부 편집인,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편집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자신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단순히 원어민과의 회화에 투입하는 공무원 국제화 교육비용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 공무원의 학습조직과 국제교류를 연계하는 본 사업이야말로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국제적 언어능력 함양효과를 창출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국제기구 가입을 통한 교류

지역의 국제교류 사례 중 최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국제적 현안들을 해결하는 핵심단위로서의 지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류활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가입은 지역간 경제협력과 교류, 문화행사

유치 및 해외 문화교류,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국제교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 ① 순천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가입 사례

전라남도 순천시는 2004년 처음으로 ‘국제교육도시연합회(IAE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에 가입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IAEC에 가입신청 승인을 받았다. 순천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민참여적인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확보하고 지역의 교육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관리할 목적으로 본 국제기구에 가입하였다. IAE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본 지역을 교육도시로 공식 인정을 해야 하고, 국제교육도시현장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순천시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교육도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새로운 도시발전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순천시는 본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행정적 절차들을 만들었고,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1국 3과 10담당) 직제 신설과 평생학습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후 국가의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순천시의 이러한 국제기구 가입은 국제사회의 교육 스탠다드(standard)로서 한국의 순천지역이 갖추고 있는 교육 인프라의 내용을 국제기구를 통해 홍보하고, 또한 국제기구가 요청하는 효과적인 교육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지역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효과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교육교류를 위한 지역단위의 교두보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필요한 지역의 교육행정 시스템의 개편을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성과를 낸 것이 바로 순천시의 국제기구 가입의 핵심성과라고 할 수 있다.

#### ② 경상북도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창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경상북도는 통상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이며, 다각적인 통상정책을 실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협력, 의료, 환경지원 및 인적교류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중국과 남미지역의 지역간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된 것이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의 창설이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총 6개국 59개 동북아지역 자치단체들이 통상교류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인적 자원 교류네트워크 형성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간 연합기구를 창설 하는데 경상북도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본 자치단체연합을 통해 (주)경북통상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판로개척은 물론 다자간 전 품목 상담회(멀티 비즈니스 어페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역의 수출지원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본 연합체를 통해 동북아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간의 동반자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지역간 교류를 확대시키는데 성공하고 있고, 넓게는 미 주지역까지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국제기구나 국제적 성격의 연합조직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상북도는 도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성장 동력에 대한 판로개척은 물론 해외 홍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자치단체 연합 사무국을 경북에 유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통상 거래 및 정보 유통의 허브(herb)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가 지원하는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본 연합체 회원국 중심으로 개척함으로써 세계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직접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적 단위의 지원을 유도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최근에는 몽골지역의 다수 자치단체들이 본 연합조직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실제 가입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몽골시장 개척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 확대 역시 본 연합체를 활용하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경북의 경우 자치단체연합건설을 주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입지를 확보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역연합체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2. 외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사례

###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례

#### (1) 오사카시의 국제교류 사례

일본의 오사카시는 198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의 기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에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국제교류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새로운 내용의 국제교류관을 발표한 바 있다. 오사카시의 국제교류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요약될 수 있는데, 기존의 자매도시, 우호도시 사업을 포함하는 민간교류분야와 산업 및 통상교류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사업과 경제협력과 협약체결 등이 뒷받침되는 정책협력 사업이 그것이다.

오사카시의 국제교류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문화, 경제, 스포츠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다양한 시민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 교류가 지역정부간의 형식적 자매결연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사카시의 다차원적, 시민결합적 교류사업의 운영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인 도시간의 자매결연은 물론, 오사카시의 민간교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비즈니스 파트너 도시와 자매하는 방식의 교류라고 할 수 있다.

#### ① 비즈니스 파트너 도시(Business Partner Cities)

오사카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본 도시와 통상과 거래가 많은 국가의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분야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제휴 체제를 활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 제휴는 지역의 다양한 물품의 판로들과 필요한 경제적 협정 및 협약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미의 지역간 교류를 추구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사카시의 비즈니스 파트너 도시에 포함된 주요 국가들은 홍콩(1983), 싱가포르(1989), 자카르타(1990), 서울(1992) 등이며, 이들 지역 자치단체와 경제교류 협정은 물론 비즈니스 파트너 도시로서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의 교류, 경제인 교류, 상호 투자 및 지역기업 설명회 등을 파트너 단위에서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및 경제활동과정에서 일본 오사카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단순한 자치단체간의 형식적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정부가 비즈니스 파트너 국가의 기업이나, 정부와 경제활동을 매개로 교역하며, 이에 필요한 지역기업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파트너 도시체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는 교류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자매(우호)항

오사카시는 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매(우호)항 교류사업이다. 본 사업은 특별히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과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196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의 협력관계로부터 1974년 호주 멜버른, 1985년 부산, 1994년 사이공 등의 항구도시들과 차례로 우호항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사업은 친선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만관리와 관련된 기술협력, 관련 회의 개최, 선박 및 해양 관련 정보공유와 전시회, 포럼 등 다차원적인 문화교류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오사카시는 1995년 오사카자매항 문화교류 센터를 남항지구에 설립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 왔고, 공통의 지리적, 환경적 요소를 갖는 해외국가의 지역과 효과적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사카시의 교류사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정부간 교류양식보다는 민간중심, 사업중심의 국제교류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민간인의 교류도 광범위한 홍보성 교류보다는 지역의 핵심사업이나 환경적 요소와 결합하는 내용의 경제교류 및 민간교류를 선호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교류 사업을 공식화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관련 사업자 민간인들은 자신의 경제 및 관련 활동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참여를 수행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역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이다.

## ③ 국제기술 협력

오사카시의 민간교류이외에도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된 사업 중에 국제기술협력 사업은 실질적 효과를 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기술협력은 오사카시의 지역도시 경영공학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지역에 이전함으로써 오사카시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교류사업이다.

오사카시는 세계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도시문제, 특히 도시의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한 다양한 기법들을 메뉴얼화 하고, 이를 타 국가 지역에 전달함으로써 국제기관의 설립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이러한 기술협력을 통해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국제연합환경계획) 국제환경 기술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

고,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사업과 협력하여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술사업에 포함되는 국제기술협력과 JICA와의 협력사업의 내용을 살펴 보면, 오사카시가 추구하는 기술협력사업의 범위와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국제기술협력사업은 오사카시가 기존에 체결한 다양한 자매도시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상하이, 함부르크, 상트 페테르부르크시 등과는 도시공학과 기술교류 측면에서, 브라질의 크리티비시와는 환경기술도시로서 기술협력을 각각 체결하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항과 타이완항과 같은 자매항 지역도시와는 항만관리 개선 계획을 지원하고, 폴란드의 그드니아항과 호주의 멜버른 항, 베트남의 사이공항 등에는 직접 자치단체 지원을 파견하여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인적교류 사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오사카시의 정책적 필요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해외 도시지역의 특성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기술협력 및 이전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개발도상국의 도시에는 기술지원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의 경우 소방자동차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화재 및 소방관련 경영 기법을 전수하는 방식의 교류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오사카시의 독자적 기술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앙국제협력단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교류사업도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JICA와의 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전도상국의 연수생들을 직접 초청하여 플라스틱 공학, 대기오염책, 항만개발정책세미나, 도시배수, 녹화행정, 폐기물 대책, 상수도 유지관리, 환경세미나 등의 연수코스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도시정부의 관련 담당자들의 일본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돕고 이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전파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효과적인 자치단체 공무원 교류는 물론 인적자원 교류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JICA와 협력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오사카시의 교류사업은 발전도상국가에 기술이전이나 지원을 위해 직접 자치단체 공무원을 3개월 이상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주로 자치단체의 환경관련 담당 기술자로서 대기오염대책조사반등 TF형식의 파견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자치단체에 직접 파견하는 체제이다.



#### ④ 환경기술 협력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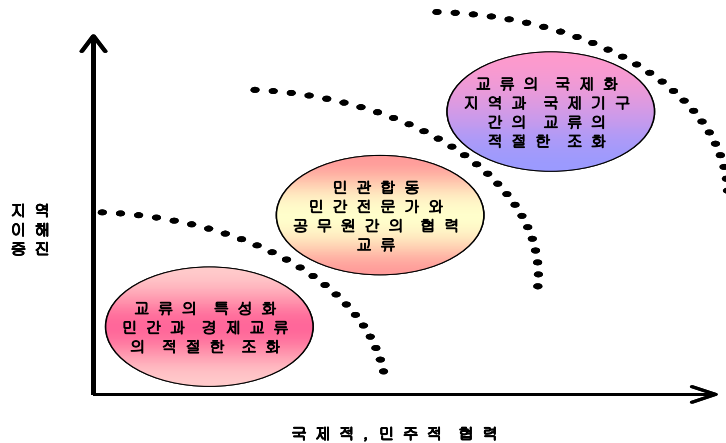
오사카시는 도시지역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문제로서 도시환경문제와 관련된 기술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과거 일본이 고도경제성장시기에 경험했던 대도시 대기오염을 비롯한 오염문제와 이와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비슷한 환경에 있는 타 지역 도시에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기술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상하이시인데, 상하이시는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오사카시가 제공하는 집중 교육 코스에 공무원을 파견하기도 했고, 상하이시의 대기오염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문인력 공급은 물론 필요한 기술이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협력한 바 있다.

최근에는 상하이와 오사카시는 자동차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협력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상하고 진행해오고 있는데,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를 세분화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오사카시의 교류방식은 단순히 교류사업의 수나 교류도시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아닌 기존의 교류협력을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더욱 더 건실한 교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교류사업의 한 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사카시의 국제교류 협력의 핵심요소와 특성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참조). 첫째 오사카시의 경우는 민간교류를 경제교류와 연계함으로써 자치단체 교류에 있어 민간참여는 물론 실효성(feasibility)을 확보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핵심쟁점을 지역적으로 소화하고, 지역간 교류를 국제협력사업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국제문제 해결 수단을 지역단위에서 확보하는 거시적 차원의 교류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관리 노하우를 국제사회에 홍보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기구의 조직일부를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성장에 모티브로 활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지역이 아니라 국제기구의 핵심 어젠다(agenda)를 현장에서 실현하고, 이해를 같이 하는 다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인적·기술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지역의 힘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사카시의 국제협력 및 교류의 특성은 자치단체 직원을 직간접적으로 파견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간의 협력적 관계를 교류사업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된 기술이전 과정에 필요한 자치단체 기술공무원을 타 국가의 지역에 파견하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공무원 전문성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네트워크를 확충해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오사카시의 국제교류는 정부간 교류사업으로 정의되기보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 간의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으로, 그리고 민간전문가와 관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림 3] 오사카시 국제교류의 핵심요소와 특성

## (2) 오츠시의 국제교류 사례

오사카시와 같은 일본 내 거대도시의 국제교류와는 차이가 나지만,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핵심목적으로 효율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오츠시라고 볼 수 있다. 오사카시의 국제교류가 세계 지향적, 외향적 국제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오츠시는 지역의 내향적 국제화를 통해 다인종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문화적 기반을 관리해나가는 교류사업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오츠시가 추구하는 내향적 국제교류는 본 지역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체질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지역 내의 다인종, 다문화 교류체제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오츠시는 최근 심각한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문제점을 안고 있던 전통적인 도시이다. 본 도시가 국제화 시대에 전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내의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티브 생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전환되었는데, 일본의 중앙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오츠시는 자생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국제교류를 핵심적인 대안으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안이 바로 오츠시의 내향적 국제화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 ① 오츠시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공생추진 계획

현재 오츠시내에는 약 4,300여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는데, 북한동포, 중국, 조선족을 포함한 한국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브라질, 미국인들이 나머지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미계의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오츠시는 이러한 외국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츠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생활가이드와 지방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를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이를 관련 정책에 반영한다. 일본어 교실 및 의료상담, 행정처리에 관한 무료 상담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있어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오츠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내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개별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오츠시는 인건비, 사무비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분담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 내 집단거주 증가와 해외여성의 국내결혼 및 이주 현상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의 자치단체들도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문화와 지역문화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과 오츠시의 외국인 지원사업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초기의 내향적 국제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글 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고 문화탐방으로 우리 문화에 외국인들이 적응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츠시의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스스로가 다른 나라와 인종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국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츠시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자국 및 지역 홍보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공생’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오츠시에서 다른 언어나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내향적 국제교류의 성격을 갖고 있다.

## ② 자매결연

오츠시의 내향적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 역시 특이할만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츠시의 자매결연은 교류 초기부터 철저하게 민간중심성의 원칙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가 먼저 정부간의 교류를 시작하고, 이후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민간교류가 곧 자치단체의 교류로 승화되는 매우 특이한 성격의 국제교류를 실시해오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빌츠부르크시와의 자매결연은 시인 마스터 다이의 비와호 팔경이라는 시를 통한 문인들의 교류에서 출발하여 정부간 교류로 확대된 것이고, 1990년도에 자매결연을 한 우리나라의 구미시와는 볼링협회, 소프트볼, 청소년 축구 상호교류 등 스포츠인 들의 민간교류에서부터 시작되어 구미시와 오츠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다. 그 이후 구미시와는 행정, 미술, 난, 장애인등 다양한 방면의 교류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해오고 있다.

자매결연의 형식적 성격을 탈피하는 방안으로 오츠시의 이러한 민간교류의 내용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인적 요소들을 출발점으로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협약이 생성되는 완전한 형태의 민간교류가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츠시의 자매결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지역이 공유하는 인적, 물적 요소들을 통한 기능적 결합을 추진하고, 이후 필요한 상위협약을 추구해나가는 점진적 교류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츠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중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례

중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중국의 경제적 잠재성을 활용하여, 타 국가의 지역들과 경제 교류 및 통상교류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국제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 중에서 최근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가 바로 중국의 하얼빈 시의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할 수 있

다. 상하이시 국제교류사업은 한·중·일 우호도시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될 만큼 최근 국제교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얼빈시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중국 동북지역의 중심도시이며, 8개구와 10개현을 관할하고 있고, 인구규모는 974만 명으로 대규모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하얼빈시는 중국의 6대 공업기지중의 하나이며, 기계제조, 의약, 식품과 첨단기술체제 등의 다양한 산업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풍부한 농림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상품의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하얼빈시는 도시자체의 자원수준만을 살펴보더라도 최첨단 산업으로부터 농림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류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일본, 한국의 중심적인 교류지가 되어왔다. 특히 하얼빈시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되어 있어서 동북아의 중요한 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생산총액은 13년간 두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 2년간 중국의 100도시중 10위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얼빈시는 이러한 자체기반을 해외국가로 확장하기 위해 최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사회발전과 번영을 위한 국제 교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들과의 자매교류를 통해 도시 시민간의 이해증진은 물론 경제, 과학, 기술, 문화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방면 교류사업의 핵심적인 대상 지역都市는 일본의 니가타시, 아사히카타시, 한국의 부천시 등 17개국 20개 도시로서, 이를 통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다차원적인 교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자매도시와는 경제, 기술, 문화, 교육, 위생, 체육도시건설, 환경, 관광, 인재교류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경제교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온 하얼빈 시는 최근에는 자매도시의 고위관계자의 상호방문, 시찰단 파견, 투자유치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경제무역과 기술협력 및 교류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일본의 니가타시에서 하얼빈 상품전시회를 2차례 개최하고, 이에 대해 니가타시는 3,000만엔을 투자하여 하얼빈 시와 함께 공동으로 태양도에 하얼빈-니가타시 우의원을 건립하여 관광명소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한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오랜 자매결연 관계를 경제적, 실리적 관계로 확장시킨 대표적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산업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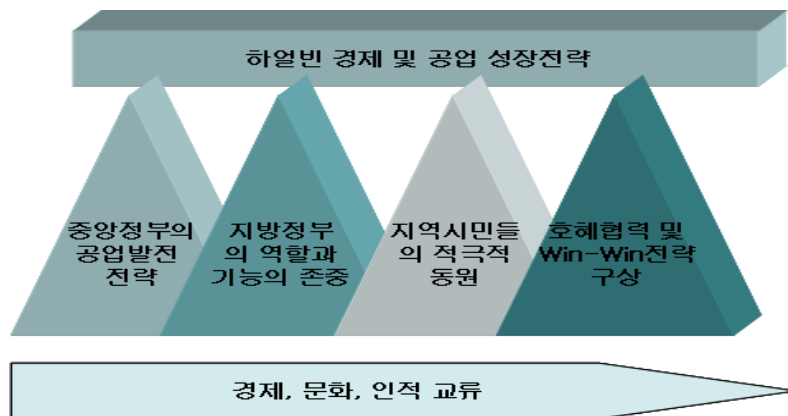
한국의 부천시의 경우는 하얼빈 경제무역 상담회에 해마다 대표단과 경제무역 시찰단을 파

견하고 있으며, 대표단의 규모도 여러도시 중 가장 크다. 이러한 교류의 결과 하얼빈시는 시내에 한국 주간행사를 마련하여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익을 내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 및 통상교류 뿐만 아니라 하얼빈시는 이러한 교류에 기반이 되는 인재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얼빈시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 전략에 따라 자매도시에 공무원과 연수생을 파견하고 이들을 글로벌(global) 인재로 양성하는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니카타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국제교류 인원과 연수생들을 즉시 파견하는 행동을 취했으며, 니카타시에 지금까지 파견된 공무원과 연수생들은 언어, 의료, 시정(市政), 환경보호, 농업, 음식 서비스, 공업기술 등 각 분야에 총 600여명을 70차례 파견해왔다.

이러한 직접적인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하얼빈시는 주요한 교류대상국가와의 문화교류 역시 중요한 교류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간 교류 사업은 일본 문화를 자매지역 도시에 확산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얼빈 국제눈조각시합에는 한국의 부천시와 일본의 니카타시를 주축으로 참가단이 구성되며, 하얼빈 시의 소설화예술단 경극팀은 일본 니카타시에 집중적으로 파견하여 공연하도록 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있다.

하얼빈의 국제교류는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그림 3 > 참조)



[그림 4] 중국 하얼빈시의 국제교류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첫 번째는 하얼빈시의 교류사업의 종류와 내용이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 및 도시발전 전략 하에서 구성되고 선택된다는 점이다. 최근 하얼빈시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업기지 진흥 전략을 추진하고, 흑룡강성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0년까지 기계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녹색 식품, 의약공업 분야로의 특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공업발전 전략에 근거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 사업대상과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하얼빈시의 국제교류는 철저하게 지방정부 주도성을 반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민간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교류를 다양한 파트너들의 관여체제로 본다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얼빈 시정부의 경우는 도시계획, 자원 활용, 환경보호, 인재양성에 있어 민간부문 보다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교류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하얼빈시의 국제교류는 민간교류의 기초적 역할을 충분히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을 문화, 경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계층의 다양한 상호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도시와 우호적인 왕래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하얼빈시의 교류 사업은 철저하게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매도시 중에서도 각자의 경제사회 발전의 특징에 따라 서로에게 보완적 요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교류 대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통한 Win-Win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스스로의 지역이해만을 실현하기보다, 교류 대상 지역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가 적절하게 확보되는 형태의 교류 사업들을 사전에 구상하고 실현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양자 간의 관계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며, 교류사업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3. 국내 · 외 국제교류의 시사점

이상과 같은 활발한 국내 · 외 국제교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국제교류를 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국제교류를 지방정부간의 공식적인 교류에서 수요자중심의 민간교류의 내용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국제교류의 장을 열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자매결연을 통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군사적 협력 등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간 교류가 쉬운 분야부터 접근하여 그 확산효과를 통해 타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 approach)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官주도의 교류에서 시작하지만,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교류로 전환되어야 하고, 官은 이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사례에서도 전주는 단순한 자매결연 방식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자매결연을 지역방송간의 결연 등 민간교류를 위한 적극적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자원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오사카의 경우에도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다차원적 · 시민결합적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추상적인 광범위한 국제협력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핵심사업이나 환경분야 등 지역의 특정 관심분야와 결합된 경제 · 민간교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오사카의 경우 환경기술 분야라는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부합하는 교류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이다. 오사카시는 항구라는 지리적 환경에 맞추어 자매(우호)항 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국제교류 대상 선정에서부터 국제교류의 내용을 구체화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 기존 민간주도의 국제교류 영역을 공익의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시는 민간교류의 영역으로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국제영외교류사업을 공익의 차원에서 국제적인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영어학습을 위해 기업차원에서 국제적인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활발히 전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기존 민간주도의 국제영역을 공익의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오사카 등의



예에서와 같이 도시의 환경문제 등 지방정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제 4 장 충청남도 국제교류 실태 및 문제점

### 1. 구조적 요소

#### 1) 조직 및 인력

충청남도는 세계화와 우루과이 라운드 전개에 따라 지방차원에서의 국제통상의 중요성을 대두되어 충청남도는 1994년 국제통상전담부서인 국제통상협력실 신설하였다. 이전에는 총무과, 기획관실, 자치행정과에서 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중심으로 국제교류업무가 분산 추진되었다. 1996년에는 국제교류와 통상이 분리되었으나 1998년에 현재의 국제통상과가 신설되면서 국제교류와 통상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충청남도청에는 현재 2담당(국제기획, 국제교류), 3팀(통상진흥, 투자유치, 중국지원), 3해외사무소(뉴욕무역관, 구마모토사무소, 상해무역관)에 29명이 국제교류 관련 업무에 배치되어 있다.

충청남도청 국제통상과는 충남도의 국제교류·통상·투자유치·해외사무소 운영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공무 국외여행, 국제회의 등 도정의 국제화 추진
- 해외사무소 운영관리, 전임계약직 등에 관련된 사항
- 해외교류 단체, 해외교포 등과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수출기업 육성 제도적 기반 구축,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 박람회·전시회 참가
- 해외투자유치활동, 투자유치 환경 조성
- 투자지역지정 및 외국인기업 사후 관리

〈 표 7 〉 국제교류 관련 충청남도 부서 변천

| 날짜     | 부서명          | 조 직                                  | 비 고                                   |
|--------|--------------|--------------------------------------|---------------------------------------|
| 1994.5 | 국제통상협력실      | 2계11명(국제협력계, 국제통상계)                  | 부지사직속                                 |
| 1996.2 | 국제협력<br>담당관실 | 2계13명(국제교류계, 국제지원계)                  | 기획관리실 산하<br>통상업무는 중소기업과<br>로 분리       |
| 1997.2 | 국제협력관실       | 3계17명(국제기획계, 교류1·2계)                 | 뉴욕사무소 개소<br>4개계(국제기획·아주·<br>미주·구주계)   |
| 1998.9 | 국제통상과        | 5담당26명(국제기획·통상협력·아<br>주·미주·구주담당)     | 경제통상국 산하<br>일반교류·통상업무통합<br>구마모토사무소 개소 |
| 1999.9 | 국제통상과        | 5담당30명(국제기획·국제교류·통<br>상진흥·투자유치·외자유치) | 국제부서 일원화<br>상해상품전시관 개관                |
| 2000.8 |              | 외자유치담당을 투자유치담당으로 흡수                  |                                       |
| 2003.1 |              | 통상진흥·투자유치담당을 팀으로 변경                  |                                       |
| 2004.1 |              | 중국지원팀 신설                             |                                       |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인력의 언어능력과 국제적 감각은 국제교류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이다.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교류관련 공무원의 언어능력을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영어는 1.50, 중국어는 1.44, 일본어는 1.33으로 조사되어 中이하의 언어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충청남도의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언어소통”이 40.0%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제감각이 풍부한 인재발굴 및 육성”이 2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한편으로는 충남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언어능력을 구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으로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감각이 풍부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예산

세계화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중 하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2006년 국제통상과의 예산은 337억원으로 전체 도예산의 0.15%에 불과하다.<sup>7)</sup>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부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하며, 증액방법으로는 국제교류기금 확대를 66.6%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따라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열악한 수준의 예산만을 확보할 수 있는 까닭에, 추진되는 사업들 자체가 장기적·종합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지 못하여 단지 단기적·부분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빈약함은 관리자의 국제부문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낮고, 예산 부서의 국제업무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아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보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자치단체의 예산 중 일정 비율을 국제교류 관련 예산으로 확보하게 하는 방안과 국제교류기금의 신설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외부협력체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는 중앙정부 조직인 행정자치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외국의 실정을 소개하고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 활동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속 직원들의 대부분이 행정자치부 및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재원도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단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어 독자적인 운영체제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국제화추진협의회는 시·도의 국제화 추진에 있어서의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거

---

7) 2006년 총예산대비 국제교류·통상관련 예산은 강원도 0.03%, 경기도 0.78%, 경남 0.31%, 경북 0.15%, 광주 0.15%, 부산 0.26%, 울산 0.03%, 제주도 0.03%, 충북 0.30%이다.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조

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발족된 민·관·산·학 협의체이다. 이 협의회는 년 2회 정기회를 개최하기는 하나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시·도에 대하여 지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협의내용도 시·도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들에 대한 협조 차원의 성격이 많아 국제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촉진하는 외부협력체계를 찾아볼 수 있다. 지방정부간 국제조직은 지방정부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통의 이익과 관심사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조직 연대로는 일본의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 [www.clair.nippon-net.ne.jp](http://www.clair.nippon-net.ne.jp)), 미국의 국제자매도시협회(SCI : [www.sister-cities.org](http://www.sister-cities.org)),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 : [www.iula.org](http://www.iula.org)), 국제도시관리협회(ICMA : [www.icma.org](http://www.icma.org)),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전세계 도시간 교류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조직 연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개발계획, 환경대책, 삶의 질 향상, 세계시민의식 확대,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의 공유, 정보의 입수를 통하여 지역개발 등을 도모할 수 있다.

## 2. 기능적 요소

충청남도는 2005년까지 자매·우호단체와 총 540회에 6,568명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자매결연단체와는 336회에 3,913명의 교류가, 우호협력단체와는 82회에 1,112명의 교류가 진행되어, 결연단체는 소수이지만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교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교류실적을 보면 주요인사 방문을 포함한 일반행정 분야가 418회에 5,025명으로 교류회수로는 41.5%, 인원수로는 32.5%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시책/경제통상/농림·수산·환경/문화·관광·체육/공무원연수/청소년 교류 등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 표 8 〉 해외 단체와의 교류실적

(2005. 12. 31 현재)

| 단체별                   |           | 계   |       | 도→해외단체 |       | 해외단체→도 |       | 결연<br>년도 |
|-----------------------|-----------|-----|-------|--------|-------|--------|-------|----------|
|                       |           | 회수  | 인원    | 회수     | 인원    | 회수     | 인원    |          |
| 총 계                   |           | 540 | 6,568 | 240    | 2,506 | 300    | 4,062 |          |
| 자매·우호단체 소계            |           | 418 | 5,025 | 201    | 2,046 | 217    | 2,979 |          |
| 자매<br>결연<br>단체<br>(6) | 소 계       | 336 | 3,913 | 170    | 1,681 | 166    | 2,232 |          |
|                       | 구 마 모 토 현 | 222 | 2,756 | 118    | 1,070 | 104    | 1,686 | 1983     |
|                       | 허 베 이 성   | 69  | 710   | 31     | 331   | 38     | 379   | 1994     |
|                       | 아 무 르 주   | 16  | 140   | 6      | 71    | 10     | 69    | 1995     |
|                       | 남 호 주 주   | 18  | 191   | 8      | 124   | 10     | 67    | 1999     |
|                       | 미시오네스주    | 3   | 39    | 2      | 26    | 1      | 13    | 2001     |
|                       | 비엘코폴스카주   | 8   | 77    | 5      | 59    | 3      | 18    | 2002     |
| 우호<br>협력<br>단체<br>(9) | 소 계       | 82  | 1,112 | 31     | 365   | 51     | 747   |          |
|                       | 산 둥 성     | 24  | 205   | 9      | 101   | 15     | 104   | 1995     |
|                       | 바 이 에 른 주 | 3   | 34    | 2      | 17    | 1      | 17    | 1996     |
|                       | 볼 리 바 르 주 | 4   | 70    | 1      | 19    | 3      | 51    | 1997     |
|                       | 캘리포니아주    | 1   | 17    | 1      | 17    | 0      | 0     | 1997     |
|                       | 레닌그라드주    | 4   | 22    | 2      | 12    | 2      | 10    | 2000     |
|                       | 연변조선족자치주  | 32  | 652   | 9      | 137   | 23     | 515   | 2002     |
|                       | 룽 안 성     | 3   | 30    | 1      | 17    | 2      | 13    | 2005     |
|                       | 지 린 성     | 4   | 40    | 2      | 23    | 2      | 17    | 2005     |
|                       | 장 쑤 성     | 7   | 42    | 4      | 22    | 3      | 20    | 2005     |
| 기타 지역                 |           | 122 | 1,543 | 39     | 460   | 83     | 1,083 |          |

〈 표 9 〉 자매결연단체 분야별 교류 실적

(2005. 12. 31 누계)

| 단체별                   |                        | 계   |       | 도→해외단체 |       | 해외단체→도 |       |
|-----------------------|------------------------|-----|-------|--------|-------|--------|-------|
|                       |                        | 회수  | 인원    | 회수     | 인원    | 회수     | 인원    |
| 합 계                   |                        | 418 | 5,025 | 201    | 2,046 | 217    | 2,979 |
| 자매<br>결연<br>단체<br>(6) | 소계                     | 336 | 3,913 | 170    | 1,681 | 166    | 2,232 |
|                       | 일 반 행 정<br>(주요인사 방문 등) | 135 | 1,273 | 54     | 467   | 81     | 806   |
|                       | 행 정 시 책                | 26  | 199   | 11     | 70    | 15     | 129   |
|                       | 경 제 통 상                | 27  | 350   | 12     | 84    | 15     | 266   |
|                       | 농림·수산·환경               | 31  | 190   | 22     | 154   | 9      | 36    |
|                       | 문화·관광·체육               | 38  | 875   | 18     | 422   | 20     | 453   |
|                       | 공무원연수                  | 45  | 88    | 34     | 77    | 11     | 11    |
|                       | 청소년·기타                 | 34  | 938   | 19     | 407   | 15     | 531   |
| 우호<br>협력<br>단체<br>(9) | 소계                     | 82  | 1,112 | 31     | 365   | 51     | 747   |
|                       | 일 반 행 정<br>(주요인사 방문 등) | 43  | 365   | 18     | 153   | 25     | 212   |
|                       | 행 정 시 책                | 4   | 21    | 2      | 8     | 2      | 13    |
|                       | 경 제 통 상                | 18  | 455   | 2      | 16    | 16     | 439   |
|                       | 농림·수산·환경               | 0   | 0     | 0      | 0     | 0      | 0     |
|                       | 문화·관광·체육               | 8   | 196   | 5      | 137   | 3      | 59    |
|                       | 공무원연수                  | 2   | 3     | 0      | 0     | 2      | 3     |
|                       | 청소년·기타                 | 7   | 72    | 4      | 51    | 3      | 21    |

## 1) 인적 교류

### (1) 청소년 상호교환연수

충청남도는 청소년의 국제의식 배양과 전문확대, 그리고 상호간 역사·문화 이해로 양국간 우호 증진 및 교류기반 구축을 위해 청소년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교환연수는 Home-Stay를 통한 생활문화 상호 체험 및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등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 1999년 이후 독일지역과 미주지역은 각국 충청향우회와 연계 하여 각각 13회에 걸쳐 381명씩의 상호교환연수를 실시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중국 허베이성·연변주와 1회에 21명의 상호교환 연수를 실시하였다.

〈 표 10 〉 충청남도 청소년상호교환연수 현황

| 교류단체   |                       | 구분 | 계  |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
| 국<br>가 | 단체명                   |    | 횟수 | 인원  |     |        |        |     |     |     |     |      |
| 합 계    |                       | 소계 | 27 | 783 | 34  | 139    | 115    | 70  | 100 | 95  | 127 | 103  |
|        |                       | 방문 | 13 | 332 | -   | 63(2회) | 40     | 50  | 40  | 33  | 42  | 43   |
|        |                       | 방한 | 14 | 451 | 34  | 76     | 75(2회) | 20  | 60  | 62  | 85  | 39   |
| 독<br>일 | 재독충청향우회               | 소계 | 13 | 381 | -   | 40     | 60     | 60  | 60  | 36  | 64  | 61   |
|        |                       | 방독 | 6  | 183 | -   | -      | 40     | 40  | 40  | 20  | 21  | 22   |
|        |                       | 방한 | 7  | 198 | -   | 40     | 20     | 20  | 20  | 16  | 43  | 39   |
| 미<br>국 | -서북미충청향우회             | 소계 | 13 | 381 | 34  | 99     | 55     | 10  | 40  | 59  | 63  | 21   |
|        | -미동부충청도민회             | 방미 | 6  | 128 | -   | 63(2회) | -      | 10  | -   | 13  | 21  | 21   |
|        | -재미SF한인회              | 방한 | 7  | 253 | 34  | 36     | 55(2회) | -   | 40  | 46  | 42  | -    |
| 중<br>국 | -하북성<br>-연변조선족<br>자치주 | 소계 | 1  | 21  | -   | -      | -      | -   | -   | -   | -   | 1/21 |
|        |                       | 방중 | 1  | 21  | -   | -      | -      | -   | -   | -   | -   | 1/21 |
|        |                       | 방한 | -  |     | -   | -      | -      | -   | -   | -   | -   | -    |



## 2) 정책교류

### (1) 행정시책의견교환

정책교류는 해외자치단체와의 정책관련 인적 교류, 행사 등을 일컫는다. 충남도는 자매결연 단체와 행정시책의견교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본 구마모토현과 중국 허베이성과 총 20회의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였다. 충남은 6개 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9개 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으나 행정시책의견교환은 일본의 구마모토현과 중국 허베이성과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현과 중국 허베이성과는 행정 각 분야에서의 시책이 교환되고 있으며, 특히 구마모토현과는 여성포럼과 같은 민간교류로 교류테마가 확대되고 있다.

〈 표 11 〉 충남의 해외자치단체와 행정시책의견교환 현황

| 구 분      | 합 계 | 충남 주최 | 해외단체 주최 |
|----------|-----|-------|---------|
| 합 계      | 20회 | 11회   | 9회      |
| 일본 구마모토현 | 13회 | 8회    | 5회      |
| 중국 허베이성  | 7회  | 3회    | 4회      |

〈 표 12 〉 일본 구마토코현과의 세부 행정시책 의견교환 현황

| 시 기     | 장 소  | 테 마  |
|---------|------|--|
| 93년 11월 | 충청남도 | -사회복지, 문서관리, 환경공해 대책                       |
| 94년 03월 | 충청남도 | -농업분야, 부녀시책                                |
| 94년 11월 | 충청남도 | -환경분야(수질 및 대기오염)                           |
| 95년 04월 | 구마모토 | -행정사무관리, 홍보관리, 광역행정, 자치법무행정                |
| 97년 09월 | 충청남도 | -인사, 급여, 행정 및 지역 정보화<br>-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장관리제도 |
| 98년 09월 | 구마모토 | -보건·복지, 직원후생                               |
| 99년 08월 | 충청남도 | -통상협력, 기업유치, 중소기업지원, 관광진흥                  |
| 00년 07월 | 구마모토 | -화재예방, 소화, 건축물의 안전건물 붕괴시                   |

|         |      |                           |
|---------|------|---------------------------|
|         |      | (지진·사고) 대책                |
| 01년 07월 | 충청남도 | - 산림·임업시책                 |
| 03년 02월 | 구마모토 | - 여성포럼(20주년 사업의 일환)       |
| 03년 11월 | 충청남도 | - 전자정부, 관광진흥(아시아나항공 노선활용) |
| 04년 07월 | 충청남도 | - 한일여성포럼(여성 고령자 복지대책 등)   |
| 06년 05월 | 구마모토 | - 축산분야(식품안전 및 가축방역 대책 등)  |

〈 표 13 〉 중국 허베이성과의 행정시책의견교환 현황

| 시 기     | 장 소  | 테 마                 |
|---------|------|---------------------|
| 98년 4월  | 허베이성 | - 우호교류 활성화 방안 협의    |
| 99년 6월  | 충청남도 | - 경제통상 및 농어촌발전분야    |
| 00년 9월  | 허베이성 | - 농업정책 및 임업기술 분야    |
| 02년 11월 | 허베이성 | - 환경 및 수질분야         |
| 04년 12월 | 충청남도 | - 보건행정분야            |
| 05년 12월 | 허베이성 | - 문화·관광, 보건위생, 여성분야 |
| 06년 4월  | 충청남도 | - 농업분야              |

## (2)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활동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1996년 동북아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6년 현재 6개국(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 40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창립회원으로 가입하여 5개 분야(경제통상 21개, 문화교류 8개, 환경 15개, 방재 9개, 일반교류 12개) 가운데 환경분야에서 해변표착물조사를 하고 있으며, 동북아 청소년심포지엄에 참여하고 있다.

### 3) 자매결연

자매자치단체간의 활동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이 내용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묶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들의 작품(공작, 그림등), 중고등 학생의 작품, 일반 시민의 그림, 사진, 영화, 그 밖의 다른 작품의 교환
- 학교간의 결연, 인쇄물, 스포츠, 기타 기록물의 교환
- 미술품, 민예품, 그 밖의 토산물들의 상호교환
- 해외 상대도시의 지리, 역사, 생활양식에 관한 지식의 고양
-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전시, 생산품 등의 개척
- 자치단체장, 그 밖의 상급관리직, 교사, 학생, 그 밖의 청소년, 성인, 시민, 관광객 등의 교류에 의한 상호이해의 심화
- 자치단체직원을 파견하여 시정운영의 방법을 교환하는 외에 부대시설에 관련한 협력단체 수립
- 자매도시의 의료관련단체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의학상의 경험이나 기술의 교환
-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을 통해서 우호관계 촉진

자매결연의 동기는 자치단체별로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지리적 또는 역사적 배경, 인구규모, 산업문화 등의 유사성으로 제휴하는 경우, 둘째, 학생, 선교사, 상사원 등으로서 우리나라에 체재한 외국인들이 깊은 애착을 갖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셋째, 그 외에 지역 유력인사의 주선으로 결연이 탄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1) 충남도의 해외 자매결연 현황

충남은 6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9개 지역과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다.<sup>8)</sup> 지역별로는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의 각 1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우호협력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5), 러시아(2) 외 기타 미국, 독일,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 베네주엘라, 베트남 등이 각 1개 자치단체와 체결하고 있다. 충남 시·군의 경우 12개 시군이

8) 자매결연은 충청남도국제자매결연체결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공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서가 교환되어 국가간 국교수립과 동일하게 양 도시간 교류협력이 양 도시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단계로 상호교류를 하기 위한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교류협력의향서”를 통해 공식적 관계가 시작됨을 나타낸다.

26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8개 시군이 18개 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다. 시군의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일본(10), 미국(6), 중국(6), 몽골(1) 등 이다.

〈 표 14 〉 충청남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결연 현황

| 구 분             | 해외자치단체명      | 체결일자       | 결연 동기                         |
|-----------------|--------------|------------|-------------------------------|
| 계               | 15           |            |                               |
| 자매결연<br>(6개 단체) | 일본 구마모토현     | 83. 1. 22  | 한·일 친선협회                      |
|                 | 중국 하북성       | 94. 10. 19 | 태평양협력회 이영우회장                  |
|                 | 러시아 아무르주     | 95. 6. 15  | 고합그룹, 김한곤지사                   |
|                 | 호주 남호주       | 99. 10. 12 | 정경옥 재호 교민                     |
|                 |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 01. 5. 28  | 외교통상부 추천                      |
|                 |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 02. 4. 26  | 외교통상부                         |
| 우호협력<br>(9개 단체) | 중국 산둥성       | 95. 10. 31 | 이종현 부지사                       |
|                 | 미국 캘리포니아주    | 97. 3. 20  | 유근배 명예국제협력위원                  |
|                 |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 97. 3. 25  | 윤종락 국제자문역                     |
|                 | 독일 바이에른주     | 99. 5. 11  | 한영택 국제자문역                     |
|                 |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 00. 12. 13 | 공주대 최석원교수                     |
|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 02. 4. 16  | 오명환 명예국제협력위원                  |
|                 | 베트남 롱안성      | 05. 6. 9   | 외교통상부(주베트남한국대사관) 추천           |
|                 | 중국 길림성       | 05. 9. 26  | 연변주와의 우호협력교류 중 지린성의 제의        |
|                 | 중국 강소성       | 05. 9. 27  | 환경교류에서 교류의 폭 확대 등을 위한 우호협력 조인 |

〈 표 15 〉 충남 시·군의 해외 자매결연 현황

| 기관별    | 외 국 자 치 단 체  | 결 연 일  |
|--------|--|--|
| 천안시(2) | 미국 오레곤(Oregon)州 비버튼(Beaverton)市<br>중국 허베이(河北)省 스자좡(石家莊)市   | 89.5.1<br>97.8.26  |
| 공주시(4) | 일본 구마모토(熊本)縣 기쿠스이(菊水)町<br>일본 시가(滋賀)縣 모리야마(守山)市<br>일본 야마구치(山口)縣 야마구치(山口市)<br>미국 앨라배마주 켈훈(Calhoun)郡  | 79.9.15<br>91.8. 5<br>93.2.23<br>92.11.14                      |
| 보령시(3) | 중국 상하이(上海)市 청푸(青浦)區<br>일본 카나가와(神奈川)縣 후지사와(藤澤)市<br>미국 쇼어라인(Shoreline)市  | 99.4.26<br>02.11.15<br>03.10.15                                |
| 아산시(1) | 중국 요녕(遼寧)省 푸란띠엔(普蘭店)市  | 97.5.20  |
| 서산시(4) | 일본 나라(奈良)縣 텐리(天理)市<br>몽골 자황도(Zavkhan Aimag)<br>벨기에 후이(huy)시<br>독일 안스베르그시(네하임휴스턴시,, Neheim-husten)  | 91.11.7<br>04.10.26<br>84.12.7                                 |
| 금산군(1) | 중국 쪄린(吉林)省 안투(安圖)縣   | 95.3.28  |
| 부여군(6) | 일본 나라(奈良)縣 아스카(明日香)村<br>일본 후쿠오카(福岡)縣 다자이후(太宰府)市<br>일본 미야자키(宮崎)縣 남고(南郷)村<br>일본 시가(滋賀)縣 가모우(蒲生)郡 히노(日野)町<br>일본 시가(滋賀)縣 가모우(蒲生)郡 가모우(蒲生)町<br>중국 낙양시 | 72.11.28<br>78.4.21<br>91.9.2<br>90.5.15<br>92.11.2<br>96.8.13 |
| 청양군(1) | 중국 요녕성(遼寧省) 등탑시(燈塔市)   | 05.3.8   |
| 홍성군(1) | 중국 산둥성(山東)省 이쭈이(沂水)縣   | 02.4.24  |
| 예산군(1) | 미국 테네시주(Tennessee)州 녹스빌시(Knoxville)市   | 03.12.4  |
| 태안군(1) | 중국 산둥(山東)省 타이안(泰安)市  | 97.4.23  |
| 당진군(1) | 미국 워싱턴(Washington)州 스노미쉬(Snohomish)郡   | 89.5.10  |

〈 표 16 〉 충남 시·군의 해외 우호협력 결연 현황

| 기관별    | 외 국 자 치 단 체   | 결 연 일  | 비고                |
|--------|---|--|-------------------|
| 천안시(1) | 중국 윈딩(文登)시  | 02.10.14   |                   |
| 공주시(1) | 중국 심양시(瀋陽)  | 96.11.15   |                   |
| 아산시(4) | 중국 광저우자치구 유주시<br>중국 산둥성(山東省) 래저시<br>중국 산둥성(山東省) 영성시<br>미국 랜싱시   | 04.11.4<br>05.9.13<br>05.9.14<br>06.2.14               | 의향서<br>의향서<br>의향서 |
| 서산시(3) | 중국 산둥성(山東省) 래양시(萊陽市)<br>중국 하북성(河北省) 진황도시(秦皇島市)<br>미국 뉴저지주 클립턴(clifton)시   | 01.11.5<br>97.7.23<br>99.5.12                          |                   |
| 논산시(2) | 중국 요녕성(遼寧省) 금주시<br>중국 하북성(河北省) 낭방시  | 01.6.21<br>04.4.6                                      |                   |
| 연기군(1) | 중국 산둥성(山東省) 래양시(萊陽市)  | 05.11  |                   |
| 홍성군(1) | 중국 산둥(山東)省 이수이(沂水)縣   | 03.9.24  |                   |
| 예산군(1) | 중국 길림성(吉林省) 도문시(圖們市)  | 04.6.1   | 의향서               |
| 당진군(5) | 미국 뉴저지주 버겐군 (bergen county)<br>중국 요령성(遼寧省) 철령현(鐵嶺縣)<br>중국 길림성(吉林省) 왕청현(汪淸縣)<br>중국 산둥성(山東省) 일조시(日照市)<br>중국 산둥성(山東省) 교남시(膠南市) | 00.12.01<br>02.4.26<br>02.9.27<br>03.11.14<br>03.11.12 |                   |

## (2) 충남도 자매결연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많은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 ① 계획적 사업추진 결여

첫째, 많은 단체들이 대주민 홍보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별무한 상태에서 기관장 등 지역유력인사들의 관광차원의 친선방문, 상대도시 기념일 서신 발송 등 의례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정된 직업, 전문가, 엘리트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무원 행정연수, 예술단체 상호방문 공연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시행하여도 국제전담부서 및 전문 상담요원이 없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상대국가 및 자치단체의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국내 자치단체간 정보교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별로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출장으로 동일기관을 중복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 예비지식이 풍부하지 않아 기대하였던 소기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② 부적절한 결연 및 교류부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해외교포, 해외공관장, 사회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양 자치단체간 산업·문화의 유사성 및 상호 보완관계, 기업·사회단체들의 교류실태 등 상대도시에 관한 충분한 여건을 검토하지 못하였고, 또한 양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통하여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事前적 교감이 형성되지 않아, 결연체결 후 교류가 미진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양 자치단체간 상호요건이 충족되어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어도, 국내자치단체 혹은 상대도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부진한 교류상태를 담보하는 경우도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자매결연지역 가운데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미시오네스주, 우호협력지역 가운데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독일의 바이에른주, 베네주엘라의 볼리바르주와는 최근 3년간 교류가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교류가 부진한 이유로는 첫째, 사전에 상대지역에 대한 교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특정인사의 소개에 의존하거나 지휘부 순방명분 구축을 위해 교류협정을 체결한 측면이 있다. 둘째, 상대도시의 소극적 대응을 들 수 있다. 미

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독일의 바이에른의 경우, 상대단체에서 교류를 회피하며, 상대지역의 실무진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교류 이외의 주요 인사 방문, 청소년 및 공무원 교류 등의 친선교류에 반대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교류 지역간 지리적, 정치경제적 격차이다. 아르헨티나의 미시오네스주, 베네주엘라의 볼리바르주의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교류를 위한 접근성이 열악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언어 소통에 제한이 있으며, 교류상대국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치적 불안 및 통신설비의 불량으로 활발한 교류사업에 제약이 되고 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를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의 산업구조”가 62.5%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정치·행정적 유사성”으로 25.0%로 조사되었다.

### ③ 교류국가의 불균형

충남도의 경우 자매결연의 경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지방단체가 3개 지역으로 50%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의 지방정부가 각 1개 지역이다. 우호협력까지 포함하면 중국(5), 러시아(2), 기타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폴란드, 독일, 베네주엘라, 베트남이 각 1개 지방정부 등 총 15개 지방정부와 결연·협력이 체결되어 있다.

시·군의 경우에는 일본(10), 미국(6), 중국(6), 몽골(1), 총 22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지역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와 활발한 국제교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충남도의 경우 충남의 주요 수출국가 3위이며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우호협력 단체까지 포함하면 중국(5)에 비하여 미국(1), 일본(1)의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불균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인 독일의 바이에른주와 우호협력이 체결되었다 해도 그 교류가 미약하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유럽의 지방정부와는 거의 교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군의 경우 5개 시·군은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가도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국을 제외하고는 기타 국가의 지방자치와는 자매결연이 거의 없다.



충남의 주요 수출국가로는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 미국이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간 교류에서도 3개국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3개국이 자매결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못하다. 우호협력체결 자치단체를 고려하면 미국과 일본은 각 1개 지방정부에 불과해 13%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폭넓은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와 일반 교류가 가장 밀접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선진국의 지방정부가 소수라는 점은 교류대상국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시·군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일본(10), 미국(6), 중국(6) 등 3개국에 96%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충남도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불충분한 결연 과정

충남도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결연은 개인적 동기에 의한 결연이 60%로 가장 많고, 다음은 외교통상부 추천에 의한 결연으로 20%에 이르고 있다. 개인에 의한 결연은 개인에 대한 의존성이 많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의 지속과 안정이 취약할 수 있다. 자매결연은 이전에 양국의 일정기간 사전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결연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양국 지방정부의 확신이 섰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쌍방의 事前的 이해와 양 지방정부의 실질적 호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선행되지 않는 자매결연은 실질적 내용이 빈약한 형식적 행사에 그칠 수 있다. 바람직한 결연 동기로는 중국 강소성과의 체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소성과는 환경교류를 통해 양 지방정부간 이해와 교류에 따른 spill-over effect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교류의 폭과 깊이를 넓히려는 욕구가 발생하여 우호협력을 조인하게 되었다. 양 지방정부와의 교류는 더욱 확대되어 자매결연의 단계로 심화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 3. 충청남도 국제교류 실태조사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공무원을 29명을 대상으로 핵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1매의 설문지를 회수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본집단 가운데 대졸이상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가 각각

50%이었으며, 평균 총 근무년수 10년 9개월, 국제교류·통상관련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평균 20.6개월로 나타났다.

上(3점), 中(2점), 下(1점)으로 조사된 표본집단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영어(1.50), 중국어(1.44), 일본어(1.3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외국어능력이 中이하의 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구사가 가능 외국어로는 불어, 스페인어가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2명, 16.6%)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외 “국가외교의 보완”(1명, 8.3%), “지방행정 각 분야의 선진제도, 기술도입 수요증가”(3명, 25.0%), “국제감각이 풍부한 인재발굴 및 육성”(3명, 25.0%), “국제사회에서 지역이미지 제고”(3명, 25.0%) 등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의 자치단체와 국제교류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5명, 62.5%), “정치·행정적 유사성”(3명, 25.0%), “지리적 근접성”(1명, 12.5%)로 조사되어, 경제적 목적의 국제교류의 필요성과 논리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충청남도에서 가장 필요로 국제교류의 유형으로는 “경제교류”(45.0%), “문화·관광”(25.0%), “공무원 상호과견 연수교육”(10.0%), “학술교류”(5.0%), “스포츠교류”(5.0%), “청소년교류”(0%)로 조사되어 경제교류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를 위하여 충남에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는 “외국어와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양성 및 인력확충”(8명, 88.8%), “자치단체 내 연락·조정체제 정비”(1명, 11.1%)로 조사되어 국제교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수의 필요성과 전문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충남의 국제교류시 장애요인으로서는 “예산의 부족”(31.5%), “공무원들의 국제인식 부족”(30.0%), “상대 자치단체의 대응 둔화”(21.0%), “언어소통의 문제”(21.0%)의 순으로 조사되어 예산부족과 공무원의 국제감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 관련 예산 증액방법으로는 “국제교류기금 확대”(6명, 66.6%), “자치단체의 예산 중 일정비율의 의무적 편성”(2명, 22.2%),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 조성”(1명, 11.1%) 등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교류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실무자 가운데 7명(70.0%)가 “그저 그렇다”로 나타나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교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충청남도 응답자 중 90%이상이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근무를 찬성하였으며, 찬성이유로는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 및 시야의 확대”(7명, 70.0%), “지역에서 필요한 국제정보수집에 유리”(2명, 20.0%),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1명, 10.0%)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국제교류실태는 7명(70.0%)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3명(30.0%)은 “그저 그렇다”로 조사되어 충청남도 공무원의 국제교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계산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제교류의 문제점으로는 “자치단체별 산발적, 개별적 출장으로 동일기관 중복 방문”(27점), “사전 예비지식이 없는 무계획적인 해외 활동”(26점), “지방공무원의 참여기회 제한”(24점), “외교채널을 통한 충분한 사전교섭이 없이 방문”(18점), “국외여행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대외 공신력 실추”(9점)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공무원의 국제교류가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합목적성이 어, 사전의 계획적인 방문으로 동일기관 중복방문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해외연수 이수자의 사후 활용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40.0%) 나타났으며, 국제교류·통상관련 전문직 육성에 대하여 응답자 중 5명(50.0%)이 “매우 필요”, 5명(50.0%)이 “대체로 필요”로 응답하여 국제교류·통상을 전담할 전문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 자치단체와 사회단체와의 협력정도에 관한 질문에는 6명(60.0%)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에, 3명(30.0%)이 “그저 그렇다”, 1명(10.0%)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어,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의 가입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하여는 4명(40.0%)이 “전적으로 찬성”, 5명(50.0%)이 “대체로 찬성”, 1명(10.0%)이 “그저 그렇다”로 응답하여, 충남의 향후 원활한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서열척도로 조사한 충청남도가 우선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국가로는 중국(13), 미국(10), 일본(9), 인도(6), 뉴질랜드(3), 스페인(2), 독일(2), 캐나다(2), 브라질(2), 베트남(2), 네덜란드(1), 터기(1)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이는 충남이 향후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면서 중국, 미국, 일본과 우선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 제5장 충청남도 통상진흥시책의 실태 및 문제점

### 1. 충청남도 수출입동향

#### 1) 수출입 동향<sup>9)</sup>

충청남도의 수출은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즉, 충청남도의 수출은 2002년 30.0%, 2003년 30.7%, 2004년 47.8%, 2005년 14.5% 증가하였다. 충청남도의 수입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수입이 수입증가세를 주도하여 2002년 1.0%, 2003년 20.6%, 2004년 37.0%, 2005년 15.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10)</sup>

한편, 충남의 2006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9.5% 증가한 180억 65백만 달러였고, 수입은 35.4% 증가한 108억 5백만 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72억 60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 표 17 〉 충청남도지역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 구 분  |          | 2005년          |        | 2006년 상반기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수출   | 전국(비중)   | 284,419(100.0) | 12.0   | 155,504(100.0) | 13.9   |
|      | 충청남도(비중) | 33,520(11.8)   | 14.5   | 18,065(11.6)   | 19.5   |
| 무역수지 | 전국       | 23,180         | -6,202 | 7,037          | -5,152 |
|      | 충청남도     | 15,656         | 1,810  | 7,260          | 116    |

주) 무역수지의 경우 증가율란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액으로 표시

자료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년 상반기 대전·충청남도 수출입 동향분석”, 2006.7.19

9)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년 상반기 대전·충청남도 수출입 동향분석”, 2006.7.19에 기초하였음.

10) 충청남도, “2005년 충청남도 수출입 현황”, 2006.3.

## 2) 품목별, 산업별, 지역별 수출동향

충청남도의 품목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상반기 중 총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집적회로 반도체이며, 그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모니터, 승용차, 칼라TV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7.0%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모니터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집적회로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5.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청남도지역의 2006년 상반기 수출 상위품목 가운데 승용차와 칼라TV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와 5.3%의 감소세를 기록하며 수출이 부진하였다.

〈 표 18 〉 충청남도의 상위 10대 수출품목

(단위 : 천불, %)

| 순위 | 품목명       | 2006년 상반기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 총 수출      | 18,064,962 | 19.5  | 100.0 |
| 1  | 집적회로 반도체  | 5,903,214  | 5.0   | 32.7  |
| 2  | 평판디스플레이   | 2,884,573  | 407.0 | 16.0  |
| 3  | 모니터       | 1,631,095  | 7.5   | 9.0   |
| 4  | 승용차       | 756,783    | -10.2 | 4.2   |
| 5  | 칼라TV      | 702,554    | -5.3  | 3.9   |
|    | (소계)      | 11,878,219 | -     | 65.8  |
| 6  | 석유화학 중간원료 | 498,951    | 17.4  | 2.8   |
| 7  | 자동차부품     | 434,070    | 70.7  | 2.4   |
| 8  | 합성수지      | 425,343    | -23.1 | 2.4   |
| 9  | 중유        | 409,740    | 272.8 | 2.3   |
| 10 | 전산기록매체    | 367,643    | 20    | 2.0   |
|    | (합계)      | 14,013,966 | -     | 77.6  |

주) 순위는 2006년 상반기 실적 기준, MTI 4단위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년 상반기 대전·충청남도 수출입 동향분석”, 2006.7.19

충청남도의 2006년 상반기 산업별로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공산품의 비중이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화학제품이 9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화학제품 가운데에서도 IT제품의 비중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 충청남도 수출의 97.6%를 차지한 중화학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하였으나, 1차산품의 수출은 4.6% 감소하였다.

〈 표 19 〉 충청남도의 산업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불, %)

| 산업 별    | 2006년 상반기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총수출     | 18,064,962 | 19.5 | 100.0 |
| 1차산품    | 66,400     | -4.6 | 0.4   |
| 공 산 품   | 17,998,563 | 19.6 | 99.6  |
| - 경공업제품 | 374,015    | 17.9 | 2.1   |
| - 중화학제품 | 17,624,548 | 19.6 | 97.6  |
| · IT제품  | 9,712,092  | 14.6 | 53.8  |
| · 기타    | 7,912,455  | 26.4 | 43.8  |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년 상반기 대전·충청남도 수출입 동향분석”, 2006.7.19

충청남도의 지역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상반기에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69.1%, 홍콩으로의 수출이 33.1%, 중국으로의 수출이 27.8% 증가하는 등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6.9%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북미지역으로의 수출도 6.4% 감소하였다.

〈 표 20 〉 충청남도의 수출국 현황

(단위 : 천불, %)

| 구 분 |    | 2006년 상반기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국가별 | 중국 | 4,397,490 | 27.8 | 24.3 |
|     | 일본 | 3,161,927 | 69.1 | 17.5 |
|     | 미국 | 2,438,752 | -6.9 | 13.5 |

|     |     |            |       |       |
|-----|-----|------------|-------|-------|
|     | 홍콩  | 2,435,961  | 33.1  | 13.5  |
|     | 대만  | 1,248,952  | 2.2   | 6.9   |
| 소계  |     | 13,683,082 | -     | 75.7  |
| 권역별 | 아시아 | 12,409,007 | 29.1  | 68.7  |
|     | 북미  | 2,513,646  | -6.4  | 13.9  |
|     | 유럽  | 2,325,168  | 2.1   | 12.9  |
|     | 중남미 | 415,246    | 139.2 | 2.3   |
| 소계  |     | 17,663,067 | -     | 97.8  |
| 총수출 |     | 18,064,962 | 19.5  | 100.0 |

주) 순위는 2006년 상반기 실적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년 상반기 대전·충청남도 수출입 동향분석”, 2006.7.19

### 3) 성질별, 품목별, 지역별 수입동향

충청남도의 성질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원자재 수입비중 69.3%, 자본재의 수입비중이 21.2%, 소비재비중이 5.9%이다. 2006년 상반기 수입의 69.3%를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8.4% 증가하였으며, 소비재는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불과하지만 수입증가율은 90.3% 대폭 증가하였다. 2006년 상반기 수입구조면에서 충청남도지역은 수출용의 수입이 47.9% 증가하고, 내수용은 20.7% 증가하였다.

〈 표 21 〉 충청남도의 성질별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 성질별   | 2006년 상반기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총수입   | 10,805,204 | 35.4  | 100.0 |
| (수출용) | 6,392,619  | 47.9  | 59.2  |
| (내수용) | 4,412,585  | 20.7  | 40.8  |
| 원자재   | 7,491,845  | 38.4  | 69.3  |
| 자본재   | 2,288,170  | 11.5  | 21.2  |
| 소비재   | 637,425    | 90.3  | 5.9   |
| 기타    | 387,763    | 117.1 | 3.6   |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년 상반기 대전·충청남도 수출입 동향분석”, 2006.7.19

충청남도의 품목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상반기 수입 상위품목 가운데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원유, 나프타의 수입이 각각 73.2%, 43.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수입증가율도 35.4%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상반기 원유수입 급증으로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이 131.5%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중동 전체로는 76.2%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1.8% 감소하여 북미지역 전체로는 8.8% 감소하였다.

〈 표 22 〉 충청남도의 10대 수입품목 현황

(단위 : 천달러,

%)

| 순위    | 품목명       | 2006년 상반기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총 수 입 |           | 10,805,204 | 35.4  | 100.0 |
| 1     | 원유        | 3,846,582  | 73.2  | 35.6  |
| 2     | 나프타       | 1,172,903  | 43.4  | 10.9  |
| 3     | 유연탄       | 664,082    | 6.0   | 6.1   |
| 4     | 집적회로반도체   | 625,613    | 8.3   | 5.8   |
| 5     | 기타잡제품     | 387,734    | 117.2 | 3.6   |
| (소계)  |           | 6,696,914  | -     | 62.0  |
| 6     | 전산기록매체    | 286,902    | 113.3 | 2.7   |
| 7     | 기타 정밀화학원료 | 163,615    | 12.2  | 1.5   |
| 8     | 펄프        | 130,611    | 4.6   | 1.2   |
| 9     | 열연강판      | 130,503    | 73.2  | 1.2   |
| 10    | 인쇄회로      | 129,063    | -4.2  | 1.2   |
| (합계)  |           | 7,537,608  | -     | 69.8  |

주) 순위는 2006년 상반기 실적 기준, MTI 4단위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년 상반기 대전·충청남도 수출입 동향분석", 2006.7.19



〈 표 23 〉 충청남도의 수입국 현황

(단위 : 천불, %)

| 구분    |        | 2006년 1~6월 |       |       |
|-------|--------|------------|-------|-------|
|       |        | 금액         | 증가율   | 비중    |
| 국가별   | 일본     | 1,971,216  | 20.0  | 18.2  |
|       | 이란     | 1,594,702  | 131.5 | 14.8  |
|       | U.A.E. | 1,272,740  | 19.6  | 11.8  |
|       | 중국     | 1,223,443  | 19.3  | 11.3  |
|       | 미국     | 580,975    | -11.8 | 5.4   |
| 소계    |        | 6,643,076  | -     | 61.5  |
| 권역별   | 아시아    | 4,851,946  | 21.7  | 44.9  |
|       | 중동     | 4,096,715  | 76.2  | 37.9  |
|       | 유럽     | 696,372    | 20.3  | 6.4   |
|       | 북미     | 642,855    | -8.8  | 5.9   |
| 소계    |        | 10,287,888 | -     | 95.2  |
| 총 수 입 |        | 10,805,204 | 35.4  | 100.0 |

주) 순위는 2006년 상반기 실적 기준, 증감율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년 상반기 대전·충청남도 수출입 동향분석”, 2006.7.19

## 2. 통산진흥 실적과 평가

### 1) 해외시장 개척사업

#### (1)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국제전시·박람회에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148개 업체가 참가하여 218,946 천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에는 「싱가폴 정보통신전」 등 사업성과가 예측되는 국제전문 박람회 위주로 16개 사업 48개 업체가 참가하여 30,596천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sup>11)</sup>

##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충청남도는 1992년부터 도내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발판을 마련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총 32회 261개 업체가 참가하여 531,696천 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도에는 서남아, 중국지역 시장개척단 등 7개 사업에 51개 업체가 참여하여 186,834천 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두었다.

## (3) 2005년 추진실적

충청남도는 2005년 수출 335억달러를 달성하여 충남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0억달러대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무역수지 면에서도 흑자 156억달러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232억달러의 68%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출 규모는 10년전인 198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와 쿠웨이트(2004년말 기준 255억달러), 칠레(325억달러)의 수출액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2010년에는 700억달러(총 교역 규모 1,100억달러), 2015년에는 1,000억달러(교역 규모 1,500억달러)규모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인 농업도인 충남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동안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자동차, LCD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간 결과이다.

충남은 2005년도에 해외시장마케팅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6회, 전시·박람회 참가 9회, 수출상담회 개최 1회, 우수농산물판매전 등 600여개의 업체를 지원하여 1억 3,200만달러의 수출상담 성과와 1억1,062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두었다.

---

11) 충청남도, 「2005년 도정백서」, 2005. 9.

〈 표 24 〉 충청남도의 2005년 해외시장 개척사업

| 사 업 명                    | 품목군    | 시기  | 참여업체   |
|--------------------------|--------|-----|--------|
| 시장개척단 파견                 |        | 6회  | 60개 업체 |
| ① 인도상담회                  | 제조, 기계 | 2월  | 6      |
| ② 동남아시아개척단(인니, 베트남)      | 종 합    | 3월  | 10~20  |
| ③ 미주 시개단 (미국, 브라질, 칠레)   | 종 합    | 5월초 | 10     |
| ④ 중국 시개단 (타이페이, 베인징, 다롄) | 종 합    | 5월말 | 10     |
| ⑤ 아세아/대양주 시개단 (일본, 호주)   | 종 합    | 9월  | 10     |
| ⑥ 인도 시개단 (인도, 남아공)       | 종 합    | 11월 | 10     |

〈 표 25 〉 2005년 충청남도 통상진흥 실적

|                | 횟수/업체  | 수출성과    |         |
|----------------|--------|---------|---------|
|                |        | 계약상담    | 수출진행    |
| 소 계            | 16/397 | 132,686 | 110,624 |
| - 해외시장개척사업     | 6/41   | 89,726  | 6,126   |
| - 전시·박람회 지원    | 9/32   | 19,039  | 14,967  |
| - 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 1/90   | 23,921  | 8,796   |
| - 수출기업화        | 30     |         | 8,941   |
|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 30     |         | 18,184  |
| - 수출보험료 지원     | 54     |         | 40,310  |
| - 대학생무역인턴제     | 20     |         | -       |
| - e-카다로그 제작·홍보 | 100    |         | 13,300  |
| - 인터넷 화상수출상담   | -      |         | -       |

#### (4)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실적

해외시장개척은 시장개척, 전시·박람회, 바이어초청 상담 등을 통해 지역경제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의 해외시장 개척은 계약상담 대비로는 2003년에는 92.0%, 2004년에는 53.7% 증가하였으며, 수출액 대비로는 2003년 15.9%, 2004년에는 45.2%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2년 이후 충남의 수출이 연평균 30%이상 증가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이면에는 충남의 해외시장 개척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26 〉 연도별 충청남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성과

(단위 : 천 달러)

| 연도   | 업체수 | 계약성과(증가율)      | 수출성과(증가율)     |
|------|-----|----------------|---------------|
| 2003 | 37  | 42,195         | 8,340         |
| 2004 | 66  | 81,024(92.0%)  | 9,665(15.9%)  |
| 2005 | 164 | 124,534(53.7%) | 17,658(45.2%) |

〈 표 27 〉 충남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천 달러, %)

| 연도   | 수출         |      | 수입         |      | 무역수지       |
|------|------------|------|------------|------|------------|
|      | 수출액        | 증가율  | 수입액        | 증가율  |            |
| 2002 | 15,150,513 | 30.0 | 9,335,303  | 1.0  | 5,815,210  |
| 2003 | 19,806,013 | 30.7 | 11,262,375 | 20.6 | 8,543,638  |
| 2004 | 29,271,550 | 47.8 | 15,425,613 | 37.0 | 13,845,937 |
| 2005 | 33,519,624 | 14.5 | 17,863,430 | 15.8 | 15,656,194 |

## 2) 서울통상지원사무소 및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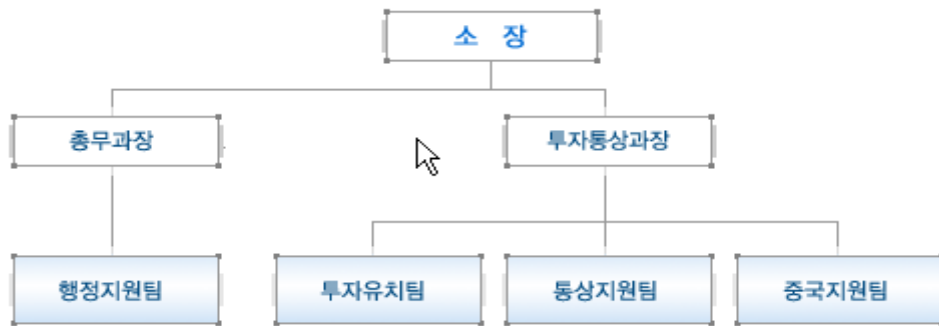
### (1) 서울통상지원사무소<sup>12)</sup>

충청남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전진기지로서 서울통상지원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통상지원사무소는 1997년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정원 5명의 「서울사무소」로 개소한 이후 1998년에는 정원을 10명(행정 4, 계약 4, 기능 2)으로 증원하였으며, 1999년 4월에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해 5월 서울 강남구 염곡동의 KOTRA 사옥으로 사무소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무소의 조직과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각각 <그림 4-1> 및 <표 4-9>와 같다.

사무소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바이어 알선·상

12) 2006년도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업무계획 참조.

담·무역실무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 구현을 위한 일선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1,318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고, 1,580건의 거래알선 및 시장정보 제공, 407건의 통·번역을 지원하였다.



〔그림 5〕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조직도

〈 표 28 〉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주요 기능

| 조 직   | 기 능                      |
|-------|--------------------------|
| 행정지원팀 | 중앙과 협조, 국비확보 등 對중앙 지원    |
| 투자유치팀 | 투자유치 알선, 상담, 현장안내 등      |
| 통상지원팀 | 중소기업 수출지원(거래알선, 언어·실무지원) |
| 중국지원팀 | 중국시장개척, 중국진출 업체지원        |

주요 업무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무소내의 공간에 「비즈니스 서포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에 사무소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에 무역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0평의 공간에 32개 업체가 입점하여 사무소로부터 통번역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바이어 알선, 무역실무지원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을 직접 보여주면서 수출 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출상품 전시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무소는 최근 전자무역의 확산추세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의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촉진을 위해서 인터넷무역지원센터(Chungnambiz.net)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체의 웹사이트 및 e-mail을 웹호스팅하여 도의 수출지원 시책과 도내 4,600개 업체의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내 99개 업체의 e-book 카탈로그 자료도 등록되어 있다.

또한 사무소는 중소기업체의 해외광고 지원을 위해 세계적인 기업광고 전문 Site인 Kompass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66개 업체에 28백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제품 소개 및 e-카탈로그 연결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도내 업체들의 對중국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Naver cafe 및 Blog운동을 통해 중국시장 정보제공을 위한 Sit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통상환경 등 641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30,000건이 넘는 접속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사무소는 해외첨단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① 투자환경 정보제공 등 잠재투자자 발굴의 접촉점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 검증과 현장 안내, 고도기술인정 및 인허가 업무 지원, ② 클러스터 기반 조성 및 시·군과의 Network 구축을 통한 자동차, LCD, 서비스, 유통 등 전략산업 연계 투자 유치, ③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첨단기업 R&D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천안 벨리(Techno Park)의 R&D 중추 기능 활성화, ④ 해외 IR(Investors Relations)활동 지원 등 중견 유망(벤처) 국내기업의 외국 자본·기술 제휴 지원 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5,61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사무소는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도의 중앙부처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의 향우단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도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도행사의 예약, 자료수집, 의전, 안내 등 현장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금산세계인삼 EXPO」 행사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어 능통 전문직 직원을 전진 배치하여 인천국제공항 입국안내소를 운영하였다.

## (2) 충청남도 뉴욕무역관<sup>13)</sup>

충청남도는 1997년 3월 미주지역의 전진기지로 미국의 관문이자 세계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 충청남도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충청남도 뉴욕무역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뉴욕무역관은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신 정보 수집 및 제공, 충청남도 수출품의 수출상담 및 지원, 중소기업제품의 미국시장 조사 및 지원, 외국첨단기술 및 유망기업의 도내 유치, 미주지역 교민과의 교류협력 확충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뉴욕무역관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주요 성과는 <표 29>와 같다. 뉴욕무역관이 개소한 이후 2004년까지 6년간 총 86,499천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충청남도 도정이 뉴욕시를 비롯한 미국 사회에 널리 인식되고 확산되었으며,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 및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기업지원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지도총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통상 관습에 대한 이해를 확충할 수 있었다. 2005년도에는 수출계약 12,598천 달러, 거래알선 및 정보제공 80건, 통·번역 지원 321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3) 충청남도 구마모토 사무소

충청남도는 1998년 1월에 일본 구마모토 현청에 충청남도 구마모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충청남도는 구마모토 사무소를 일본시장 유통현황 등 무역 동향을 파악하고 충남상품의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 정보를 파악하는 등 대일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충남 관광지와 문화유적 등에 대한 홍보, 양 지역간의 국제교류 업무 지원, 선진행정과 기술의 도입, 교민과의 유대강화 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원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였다.

구마모토 사무소의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주요 성과는 <표 29>와 같다. 구마모토 사무소는 오사카전시관을 중심으로 대일 통상사무소의 대표성 확보와 시장개척 활동 여건 확보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일본시장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도내 업체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 유치를

13) 충청남도, 「2005년 도정백서」, 2005. 9.

위한 현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충청도정의 국제화 창구역할 및 선진행정을 연구하고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수출계약 3,011천달러, 거래알선 및 시장정보제공 113건, 통·번역 지원 214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 (4) 충청남도 상해무역관

충청남도는 중국 시장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상해에 1999년 12월 충청남도 상해 상품전시관을 개소하였고, 2003년 1월 대한민국 충청남도 상해무역관으로 개칭하였다. 상해무역관은 도내 중소기업체로 중국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참여업체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무역활동에 따른 각종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홍보, 상담 및 바이어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해무역관의 2005년 주요 성과로는 수출계약 3,011천 달러, 거래알선 및 시장정보 제공 283건, 통·번역지원 469회 등이다.

〈 표 29 〉 2005년 충청남도 서울·해외무역관별 성과

| 구 분     | 수출<br>계약 | 통상실무 지원(건) |                |            |
|---------|----------|------------|----------------|------------|
|         |          | 소 계        | 거래알선<br>시장정보제공 | 통·번역<br>지원 |
| 소 계     | 43,269   | 3,467      | 2,056          | 1,411      |
| 뉴 욱     | 12,598   | 401        | 80             | 321        |
| 구마모토    | 3,011    | 327        | 113            | 214        |
| 상 해     | 14,479   | 752        | 283            | 469        |
| 서울통상사무소 | 13,181   | 1,987      | 1,580          | 407        |

#### (5) 서울·해외무역관의 실적

충남의 국제통상을 진흥하고 지원하기 설립된 서울사무소와 3개 해외무역관의 활동은 충남의 수출을 진흥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수출상담실적은 1997년 7,270천불에서 2005년 96,124천불로 연평균 135.8% 증가하여 총계로는 1,069업체를 대상으로 385,221천불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수출계약기준으로는 1997년 740천불에서 2005년에는 43,269천불로 연평균 638.5% 증가하였다.

〈 표 30 〉 충남 서울·해외무역관 실적

(단위 : 천 달러 , %)

|       | 수출상담  |         | 수출계약 |         | 전년대비 수출계약<br>증감율(%) |
|-------|-------|---------|------|---------|---------------------|
|       | 업체수   | 금액(천불)  | 업체수  | 금액(천불)  |                     |
| 총 계   | 1,069 | 385,221 | 589  | 168,382 |                     |
| 1997년 | 141   | 7,270   | 16   | 740     | -                   |
| 1998년 | 70    | 10,200  | 28   | 2,208   | 198.4               |
| 1999년 | 84    | 17,217  | 53   | 5,419   | 145.4               |
| 2000년 | 80    | 21,041  | 54   | 6,891   | 27.2                |
| 2001년 | 110   | 40,204  | 79   | 14,185  | 105.8               |
| 2002년 | 122   | 52,254  | 84   | 26,918  | 89.8                |
| 2003년 | 136   | 61,517  | 84   | 30,828  | 14.5                |
| 2004년 | 145   | 79,394  | 89   | 37,924  | 23.0                |
| 2005년 | 181   | 96,124  | 102  | 43,269  | 14.1                |

### 3) 2006년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계획

충청남도는 2006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우수농산물 해외판촉 지원 등 13개 사업에 800여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업체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충남도서울통상지원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출계약, 통·번역 서비스, 바이어 사전상담 등을 중점 지원하고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인 뉴욕·구마모토·상하이무역관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제품에 대한 홍보,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계약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수출 유관기관인 KOTRA, 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조하여 해외 현지바이어 발굴, 환(換)리스크 관리,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시장정보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환율, 고유가 등에 대비한 수출상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충남도가 2006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해외시장개척 관련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1 〉 충청남도의 2006년 주요 추진시책

| 사업명                 | 대상    | 지원내용              |
|---------------------|-------|-------------------|
| 소개                  | 800업체 |                   |
| 해외시장마케팅(박람회, 시장개척단) | 130   | 해외시장 주선, 통역비 지원 등 |
| 우수농산물 판촉전           | 100   | 참가비 지원            |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40    | 소요 비용의 80% 지원     |
| 인터넷화상수출상담           | 10    | KOTRA 무료 상담 지원    |
| 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 60    | 바이어초청 상담주선        |
| 수출기업구조고도화사업         | 20    | 사업별 전액지원          |
| 수출보험료지원             | 50    | 수출신용보증보험 등 12종목   |
| 한상대회 참가, 한산바이어초청상담  | 110   | 한상바이어와 상담주선(년1회)  |
| 대학생 무역인턴제           | 20    | 무역학과 학생 인턴 지원     |
| 수출유망상품 CD제작 홍보      | 100   | 제품정보 CD제작 해외홍보    |
| 시장진출설명회 등 상담지원      | 130   | 시장진출 및 거래선 발굴 지원  |
| 해외시장조사              | 20    | 중국 등 해외시장조사 지원    |
| 국내개최 국제박람회 지원       | 10    | 국내개최 박람회 참가비 지원   |

#### (1) 해외시장마케팅(박람회, 시장개척단) 지원

해외시장마케팅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때 바이어 발굴, 상담장소 마련과 통역비를 지원하며 참가기업에서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미 상반기에 중남미, 미주, 동남아, 중국, 중동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앞으로도 인도·베트남·캄보디아(9월), 대만·중국(9월), 일본(10월), 그리스·폴란드·터키(11월)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전시·박람회는 KOTRA 및 무역협회가 마련한 부스를 통해 동경상품전시회, 프랑스자동차 부품박람회, 이라크재건박람회 등 11회를 지원하며 1개 기업에 60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가 지

원된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희망에 따라 전문 박람회 참여를 원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가 지원된다.

## (2)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인터넷 화상상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충남도가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등을 참가한 뒤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연결과 최종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 현지 KOTRA무역관의 지원 아래 추진되고 있다.

지원내용은 중국, 브라질 등 지역에 따라 총 소요비용 220만원~360만원 가운데 충남도가 80%, 참여기업이 20%를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6,500만원의 사업비로 30개 기업을 지원하여 세계 24개 지역에 지사화를 추진했다 올해는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중국, 인도, 칠레 등 30여개 지역에 45개 기업의 지사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화상상담은 해외시장개척사업 참가 후 중남미 등 거리가 멀거나 해외출장이 어려워 바이어와 자주 만날 수 없는 기업을 위해 국내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KOTRA와 협조하여 기업의 비용부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확대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환차손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는 200만달러 수출 이하의 기업에게 지원되며, 수출신용보증보험, 환변동보험 등 12종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 (3) ‘중소기업수출지원단’을 통한 마케팅 참여 기업지원

충남도는 수출기업 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사업 참가 후 바이어와의 상담, 계약체결 등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2006년 5월 KOTRA와 ‘중소기업수출지원단’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바이어 상담에서 수출이 되기까지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개척이나, 박람회 등 참가 후 해외바이어와 지속적인 연결이 되지 못하여 수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KOTRA, 무역협회 등의 퇴직자를 활용하여 이들의 무역 노하우를 중소기업 수출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기업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클 경우 2007년부터는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 4) 충청남도의 해외시장개척사업 성공사례

##### (1) 충남공예품 미국 전시회 및 특판전 성공사례

충청남도가 주최한 충남공예품 미국 전시회 및 특판전이 2006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충남공예협동조합 소속 39개 업체가 출품한 2000여점에 달하는 공예품의 전시회와 특판전을 겸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행사기간 동안 연인원 20,000여명의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들이 참가하여 총 25만불의 판매실적과 100만 불을 상회하는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방문객들이 공예품의 제작과정을 직접 보고 또 만들어 보는 시연회와 체험의 장이 동시에 마련되어 뉴욕일보를 비롯한 현지 언론으로부터 충남전통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떨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한 충남공예협동조합과 현지 수입업체인 S사간에는 S사의 충청도 농특산품 전문매장(뉴욕 1곳, 뉴저지 1곳)에 충남공예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고 S사에게 충남공예품 상설전시장에 전시된 제품의 미동부지역 판매독점권을 부여하는 양허각서가 교환되어 우수한 충남공예품을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밖에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업체들 개별적으로도 현지 수입업체와 접촉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예산전통옹기의 경우 현지의 웰빙상품 전문유통업체인 또 다른 S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백송도자기와 해송공예의 경우는 현지 H사의 뉴욕매장에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태을공예도 현지 수입업체인 S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충남공예협동조합 소속 업체들의 대표들은 행사기획 및 준비단계에서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충청남도 공무원들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지원 및 협조, 그리고 도와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전공 대학생 무역인턴요원으로 참여한 충남대학교 II사업단 소속 학생들의 참여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이번 행사는 충남공예품의 우수성을 전세계 시장에 알리겠다는 공예업체 대표들의 장인정신과 개척정신에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대학의 참여 등이 결합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향후 상설전시관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도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2 〉 충남공예품 미국 전시회 및 특판전 판매 및 상담현황

| 업체명    | 판매액  | 상담실적  | 비고 |
|--------|------|-------|----|
| 우리황토   | 6만불  | 20만불  |    |
| 해송공예   | 5만불  | 20만불  |    |
| 백송도자기  | 4만불  | 20만불  |    |
| 예산전통옹기 | 4만불  | 20만불  |    |
| 태을공예   | 3만불  | 10만불  |    |
| 충남공예조합 | 2만불  | 10만불  |    |
| 백제요    | 1만불  | 4만불   |    |
| 합계     | 25만불 | 104만불 |    |

## (2) 충남대학교 TI사업단의 무역인턴제 성공사례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산학관 협력의 지역의 무역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인 TI(Trade Incubator)사업이 6년차에 접어들면서 지자체의 무역인턴제 사업과 연계 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전국 25개 지방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TI사업단은 무역실무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해외마케팅 활동 등 무역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차세대 무역전문인력의 조기양성과 산학관 협력을 통한 수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 충남대 TI요원들이 품목을 선정하게 된 것은 2004년 8월 50시간의 제4기 무역실무 교육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서울 삼성동의 COEX에서 열린 자전거용품박람회를 품목개발차 단체 참관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동 박람회에서 충남대 TI요원들은 세계 최초로 기존 접이식 자전거의 안전성을 보완한 쌍체대 접이식 자전거와 자동 변속기어 자전거를 개발한 연구개발형(R&D) 지역벤처기업인 A사(본사는 대전, 공장은 충남 소재)를 만나게 된다. A사의 기술력과 전세계적인 교통문제 해소 및 건강에 대한 관심에 따른 수요전망에 비추어 특히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충남대 TI요원들은 동 품목을 가지고 자체 해외마

케팅 경진대회를 거쳐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해외마케팅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영예의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정보를 검색하고 해외바이어를 물색하던 충남대 TI요원들은 2005년 5월 상해자전거국제박람회에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동 박람회에서 다수의 잠재바이어들의 리스트를 입수한 충남대 TI요원들은 이메일을 통한 꾸준한 접촉 끝에 덴마크의 유력 스포츠용품 유통업체의 조회를 받게 되었다. 좀 더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업무수행을 위해 동 품목을 담당했던 팀장이 에이집바이크의 인턴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덴마크의 바이어와의 협상은 급진전되어 마침내 약 30만불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개설받게 되었으나 당시 에이집바이크의 자금상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은행들이 신용장의 네고를 꺼리는 바람에 최종 선적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동 품목의 시장성을 인지한 충남대학교 TI사업단에서는 2005년 8월에 시작된 제5기 요원들이 동 품목을 인계받아 덴마크의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던 끝에 드디어 2006년 1월 3건의 주문과 이에 대한 402,318불의 신용장을 수취하게 되었고, 3월과 4월에 걸쳐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대금 네고까지 마치게 되었다. 별도의 무역전담부서도 없는 중소벤처업체의 수출업무를 충청남도의 무역인턴제 지원하에 충남대 TI요원들이 성공리에 수행해낸 것이다.

협력업체의 대표는 충남대 TI요원들이 올린 기대 이상의 성과에 대해 놀라면서 앞으로도 충남대학교 TI사업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것이며, 충남대 TI요원들의 인턴사원 채용 및 장학금 지급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3) 한남대 TI사업단의 지역특산물 수출성공 사례

한남대학교 TI사업단은 충남 금산군청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로부터 국제인삼교역전의 부대행사인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04년 9월부터 매년 이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있다.

TI사업단은 이 행사를 통하여 수출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충남 금산 소재 인삼가공업체의 수출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관학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TI사업단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 행사에 참가하였던 해외바이어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재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바이어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 전자무역 허브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사후관리를 통하여 상당한 수출상담 및 수출계약 체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TI사업단 요원들은 수출상담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약 3개월에 걸쳐 인삼제품 바이어를 발굴하고 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초청장 발송, 상담스케줄 작성, 바이어와의 통역 및 각종 상담자료 준비, 공항 픽업, 호텔안내 등 바이어 발굴에서부터 바이어가 내방하는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행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남대 TI사업단이 국내 대학 중에서 최초로 지자체(금산군청)로부터 국제 무역행사를 직접 위임받아 성공적으로 치루게 되자, 교육부는 이를 “관학 현장교육 성공사례”로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하였으며, EBS, 매일경제 등 여러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2004년 이전에는 이 행사가 금산군청과 KOTRA간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한남대학교 TI사업단이 2004년 제6회 행사때부터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 행사가 주로 일회성에 그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나 한남대 TI사업단이 이 행사를 맡은 이후부터는 체계적인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큰 수출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TI요원들은 수출상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담 기법, 전시회 준비 프로세스, 바이어통역, 수출계약 등 해외마케팅기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TI요원들은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바이어 사후관리기법, 물품선적 및 통관 등 무역의 전반적인 실무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무역업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유능한 무역전문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남대 TI사업단은 2004년 6회 행사때에는 432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 7회 행사에서는 14개국 37개사로부터 37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2천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TI사업단은 내방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2005년 3월에는 (주)한국인삼생약영농조합법인과 일본의 (주)바라를 연결하여 1,800만원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2005년 11월에는 캐나다 바이어와 2만5200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한

남대 TI사업단은 협력업체인 (주)동진제약 식품사업부, (주)케피로스, (주)한일물산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주었다.

한편, 한남대 TI사업단은 수출상담회 진행을 통하여 통역수수료 등 수익을 실현하여 향후 TI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정기반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남대 TI사업단은 이러한 수익을 TI요원들의 외국어교육 등 실질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한남대 TI사업단의 성공 포인트는 체계적으로 내방 바이어를 사후 관리하였다는 점에 있다. 한남대 TI사업단은 교역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제인삼교역전에 참가한 해외바이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e-Trade Hub System ([www.hannamti.com](http://www.hannamti.com))"에 DB화 하여 금산 인삼가공업체와의 온라인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통로를 마련해 주고,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제조업체에 관한 새로운 제품 및 회사정보를 바이어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바이어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어 수출상담을 성사시키고 있다. 수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TI협력업체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물건이 선적되는 시점까지 모든 수출업무를 대행하여 줌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5) 통상진흥시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내 수출업자들에게 직접적인 국제통상 활동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수출증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초기의 지방정부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단순히 국내시장 지향적인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시장을 인지도시켜주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초의 수출시장 인식에 중점을 둔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수출기업들에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즉, 지역의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최근에는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목표 하에서 수출기업들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적절히 파악하고 보다 전문화된 수출촉진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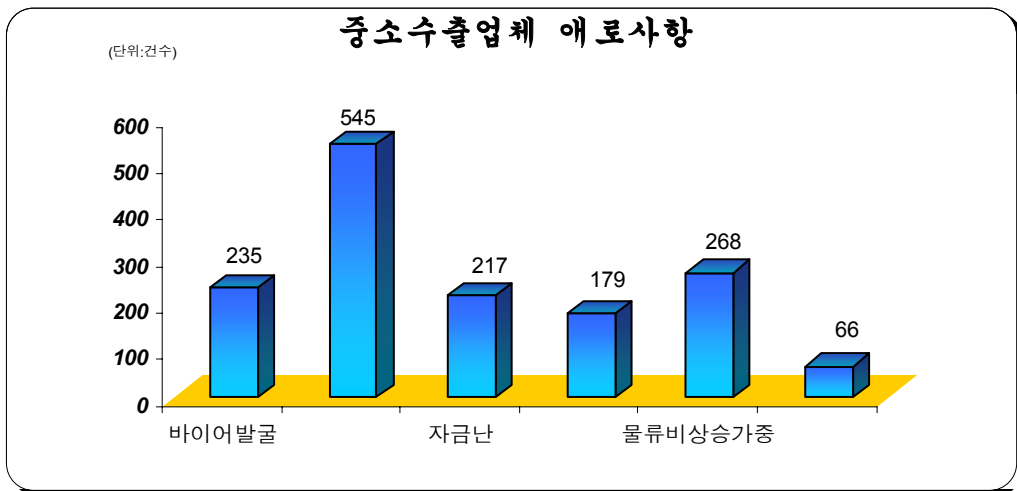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최근 충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감안한 충남의 향후 수출지원시책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충남 중소기업들의 수출관련 애로사항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충청남도 국제통상과가 지역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설문참여 720개사가 복수 응답한 애로사항 유형별 내용은 ① 고유가, 환율하락 등 수출채산성악화 545개 업체(75.7%), ② 물류비 상승 가중 268개 업체(37.2%), ③ 해외 시장정보 등 바이어 발굴애로 235개 업체(32.6%), ④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난 217개 업체(3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이를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최근의 환율하락을 반영하여 수출채산성 악화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기업이 2005년 60.1%에서 2006년에는 75.7%로 크게 증가하여 환리스크 대처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그 동안 도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확대와 업체들의 해외시장경험 축적으로 인하여 해외 시장정보 및 바이어 발굴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은 2005년 38.3%에서 2006년에는 32.6%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단위: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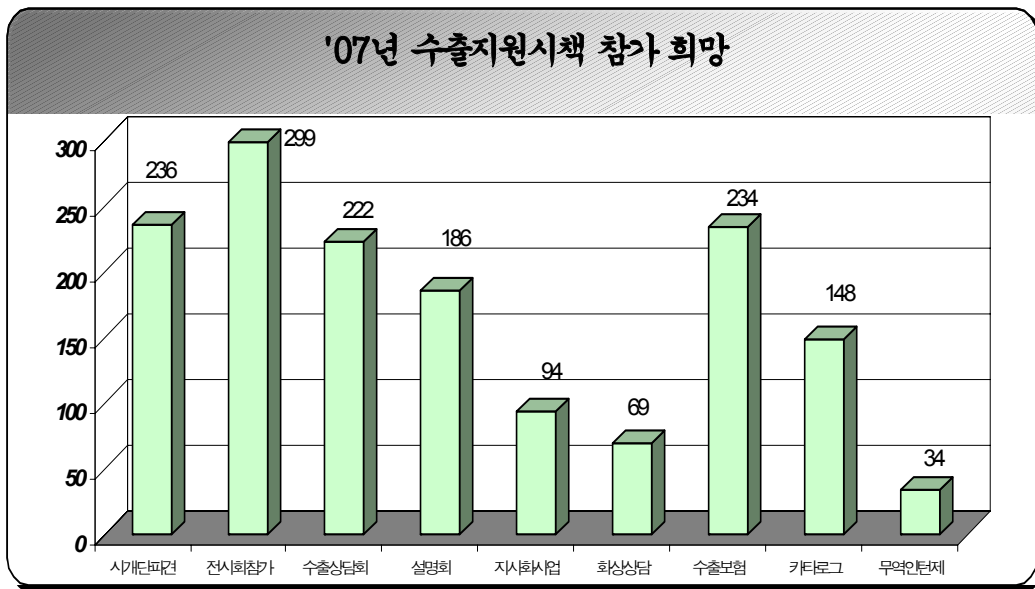
[그림 6] 2006년 충남 중소기업들의 수출관련 애로사항

## (2) 충남의 향후 수출지원시책 방향

충청남도 국제통상과가 지역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철에서 언급한 수출관련 애로사항 조사와 함께 2007년 수출지원시책에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설문참여 757개 업체가 복수 응답한 2007년도 도의 수출지원시책 참여 의향은 ① 전시·박람회 참여 299개업체 39.4%, ② 시장 개척단 참가 지원 236개 업체 31.1%, ③ 수출 보험료지원 234개 업체 30.9%, ④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22개 업체 29.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200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수출 보험료지원을 희망하는 업체가 수출상담회 참여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수출상담회 참여의사는 2005년의 40.9%에서 2006년에는 29.3%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환율불안에 따른 기업의 환리스크 강화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시·박람회는 개별참가 172개社, 단체참가 94개社, 개별+단체 33개社로 나타나 단체 보다는 개별 박람회 참가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의 2007년 수출지원시책 참여의향은 <그림 7>과 같다.

(단위: 업체수)



[그림 7] 충남 중소기업들의 2007년 수출지원시책 참여의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은 해외시장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05년에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6회, 전시·박람회 참가 9회, 수출상담회 개최 1회, 우수농산물판매전 등 600여개의 업체를 지원하여 1억 1,200만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수출상담 결과가 바로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2~3년의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리해 간다면 계약이 성사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마케팅 지원시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파견규모를 중심으로 다각화할 것인가, 아니면 품목전문화를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시장개척이 시장다변화와 종합적인 시장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유사업종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시장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백화점식 업종 선정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종의 논리하에 유망업종 중심으로 단일품목화 또는 업종별 클러스터화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지방정부가 주최가 되어 진행되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같은 행사는 실질적인 무역상담과 더불어 국제교류에 관련된 의전내용도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다 많은 무역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출기업들의 경우에는 시간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무역업체들은 단순히 무역상담장에서의 상담활동과 더불어 현지 생산지 또는 판매장의 방문과 추가적인 무역상담을 원하고 있어 상담장에서 많은 보내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장개척단 참여업체와 단체박람회 참가업체의 수출실적을 조사한 결과 시장개척단보다는 수출은 전년조사시보다 2배 증가한데 비하여 박람회 참가업체의 수출은 7배가 증가하여 단체박람회 참가가 성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첫째, 수출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수출기업들에게는 신규바이어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해외시장개척단 등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기존방식을 채택하고, 둘째 이미 수출시장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수출기업에게는 박람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시장개척단은 기존의 여러 국가를 순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망상품별로 특화할 수 있는 특정국가를 선택하여 그 국가에서 집중적인 무역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해외시장개척 활동은 수출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업체들은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필

요한 준비사항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앞서 현지 통상환경 조사를 통하여 자사 상품의 경쟁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 바이어들과의 계약상담 일정을 준비하여 현지에 도착과 동시에 바이어들과의 무역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략적 국제통상 활동은 현지에서 무역상담의 성과가 가장 중대한 요소이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호와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의하여 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향후 충청남도가 지역중소기업의 무역업무 관련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전자무역의 활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e-무역상사<sup>14)</sup>를 활용한 전자무역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업체들의 전자무역 활용경험이 일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무역 지원사업과 앞서 성공사례에서 언급한 무역인턴제 사업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무역인턴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해외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평소 인터넷에 친숙한 무역인턴제 참여 대학생들을 전자무역 지원사업에 투입한다면 도의 추가적인 예산지원 없이도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정보 제공, 무역인력이 부족한 업체의 무역실무 지원 등 지역업체의 해외마케팅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4) e-무역상사란 전자무역 제반기술 및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무역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이들과 해외바이어가 거래중개, 전자 카탈로그나 오퍼 등제, 인콰이어리 관리 등 계약 성사까지의 수출입 무역마케팅 지원 및 계약 이후의 무역업무 종합 대행 또는 지원하는 전자무역서비스 제공업체를 말한다. 2003년 3월 산업자원부가 EC21, ECPlaza, Tpage 등 전자무역 전문업체들을 e-무역상사로 지정하고, 한국무역협회의 주관하에 이들 e-무역상사를 통해 3,000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에는 EC21, ECPlaza 등 2개 e-무역상사와 3개 인큐베이터 e-무역상사가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충남, 경남 등 지자체들도 앞을 다투어 지역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촉진을 위해 e-무역상사를 활용하고 있다.

### 3. 시장다변화를 위한 BRICs 시장진출방안

#### 1) BRICs의 투자환경과 전망

BRICs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세계 GDP의 8%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43%(약 27억 명)를 차지하는 인구 대국들로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은 물론 철광석, 동, 니켈을 비롯한 광물자원, 수산자원과 임산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막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권역별 최대 경제국으로 선진기술과 자본이 유입되면 빠른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이들 국가들은 과거의 사회주의나 국수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 투자제한 완화,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성장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고도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BRICs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지면서 향후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충남도와 기업들도 BRICs 시장진출에 보다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표 33 〉 BRICs 4개국의 면적, 인구 명목 GDP

| 국가  | 면적     | 인구(100만명) | GDP(억 달러, 2004) |                                   |
|-----|--------|-----------|-----------------|-----------------------------------|
|     |        |           | 명목              | PPP                               |
| 브라질 | 8,459  | 177       | 4,923           | 12,997 13,238<br>30,780<br>64,460 |
| 러시아 | 16,889 | 143       | 4,329           |                                   |
| 인도  | 2,973  | 1,064     | 6,006           |                                   |
| 중국  | 9,327  | 1,288     | 14,170          |                                   |

자료 : World Bank(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http://devdata.worldbank.org/wdi>)

이들 BRICs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선진국과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기술 격차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면

서 세계 정치·경제 질서는 물론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한 중국은 이미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로 부상했다. 러시아, 인도, 브라질도 막대한 시장으로서 또한 자원부국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로 세계 정치·외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5~7%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이들 국가의 경제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이 전 세계 GDP의 19.5%를 차지하며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인도가 8.2%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6%, 브라질은 2.2%를 차지하며 각각 8위와 10위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중국이 25.2%로 미국의 17.8%를 크게 앞서고, 인도는 11.2%로 3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러시아는 2.6%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6위를 차지하고 브라질은 1.9% 비중으로 12위로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경제성장세와 함께 이들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National Intelligence Council(2004), Mapping in Global Future).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BRICs 국가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확대되면서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인구 증가율이 중국의 인구 증가율 0.6%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 인구 대국으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브라질의 인구 증가율도 1.1%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다만 러시아는 인구 감소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BRICs 국가들의 교역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BRICs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는 2004년 말 기준 교역의 22%, 해외투자의 26.2%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할 경우 교역 및 투자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즉 우리의 BRICs 진출은 현재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은 우리 수출시장의 21.7%, 해외투자의 23.5%를 차지해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반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는 각각 1% 내외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이들 국가들의 투자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전자, 자동차, 철강 등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 2) 충남의 BRICs 시장 진출방안

충남도가 2005년 달성한 수출액 335억달러 가운데 중국 등 BRICs지역이 차지한 금액은 85억 7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25%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 2002년도 1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4.2% 늘어난 것이다.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34 〉 충남의 BRICs지역 수출액

| 년도별  | 전체수출액  | 중국          | 러시아       | 인도        | 브라질      |
|------|--------|-------------|-----------|-----------|----------|
| 2002 | 15,140 | 1,785(11.3) | 18(0.12)  | 47(0.31)  | 12(0.08) |
| 2003 | 19,806 | 3,848(19.4) | 29(0.15)  | 54(0.27)  | 19(0.09) |
| 2004 | 29,271 | 5,805(19.8) | 106(0.35) | 81(0.28)  | 20(0.07) |
| 2005 | 33,519 | 8,276(24.7) | 154(0.46) | 108(0.32) | 35(0.10) |

\* ( )안의 숫자는 충남도 전체 수출액에서 해당지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따라서 충남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매년 추진하고,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에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와 상하이무역관 등을 통해 현지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수출계약상담 제품 홍보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인도 등 중남미지역에는 시장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계획인데 충남의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을 KOTRA벨트사업과 연계하여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마지 등 기타품목에 대해서도 사전 현지시장성조사,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멕시코, 과테말라에 전자제품, 손톱깎기 등 5개 업체의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1781만달러의 상담을 통해 63만6000달러의 수출을 진행 중에 있다. 2006년 3월에는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시장에 자동차부품, 초음파계측기, 안경, 연마지 등 7개 업체가 참여하여 현지계약 4건과 708만8000달러의 수출계약상담을 추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에는 지난해 두 차례의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 13개 업체가 참가하여 현재 자동차부품, 건축자재 등 318만3000달러의 수출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9 월에도 인도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 시장은 현재 중국제품과의 가격경쟁과 현지 경제상황 등의 여건으로 짧은 시간 내에 큰 계약 성과를 이룰 수는 없었으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도 지속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지역은 2006년 5월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아무르州가 개최하는 ‘Amur Expo 2006’에 충남관을 설치하여 제품전시 및 시장개척활동을 벌였고 극동지역인 하바로프스크에 중고자동차, 건축자재, 식품 등 5개 업체로 시장개척단을 구성, 상담을 벌였으며 이 중 중고자동차, 건축자재 등은 대리점 개설, 수출계약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각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경우 2006년 5월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의료기 등 7개 업체가 참여하여 1329만달러의 상담을 벌여 75만달러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유럽지역에는 2006년 11월 중 경기도와 함께 공동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개별업체별 전문박람회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3) BRICs 시장 진출전략

BRICs 국가를 포함해 개도국에 진출 때 대부분의 경우 거시경제 지표와 외국인 투자법 등을 중시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 사회제도, 대외개방도,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 시장 등 시스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해야 한다.

BRICs 국가는 인구 대국으로서 거대한 소비시장이며,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중에 있는 고성장 국가지만, 심각한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고 소프트 및 하드 인프라도 취약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경제발전 단계 및 개방정도, 시장구조, 교육 수준 및 기술습득 능력에서 상당한 차



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로 진출할 경우 리스크 요인을 염두에 두되 잠재력과 성장성을 중시해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여러 가지 진출전략 조합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출확대 전략과 시장접근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수출 확대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유망한 분야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내구소비재 부문, 정부투자 증가에 따른 IT, 주택,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개발 사업과 자원개발에 대비한 자본재 및 중간재, 기업 투자 증가를 대비한 산업 기계류, 설비 플랜트, 산업용 부품 등의 품목을 중시해야 한다.

투자진출 전략은 각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BRICs 국가의 투자환경은 법, 제도, 사회간접자본, 산업기반 등이 대체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특정지역, 즉 특별경제구역,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수입관세 등의 면제나 감세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충남이 교역 1000억불 시대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하여는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BRICs 시장국별로 적합한 진출전략을 세워 공약을 해야 한다. 국별 진출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브라질

먼저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과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에 급급한 성격이 아닌 보다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동반자적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도자들간의 정기적인 회담이 필요하다. 이는 브라질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브라질과의 협력정책 수립시 기본적인 시각은 브라질은 우리보다 경제발전 수준과 과학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브라질과의 협력은 우리가 한수 위이고 브라질이 한수 아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세계 강국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브라질 또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쌍방향의 대등한 협력을 존중한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분야 개발에도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해 양국이 동등하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상이한 경제발전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남-남 협력모델, 즉 가칭 Korea-Brazil Partnership Program을 개발해 인근 중남미 국가들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 차원에서 브라질 시장 진출은 브라질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통한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지형을 새롭게 그리고 있는 BRICs 국가 중의 하나인 브라질은 경제규모 및 소비시장 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이 더 이상 잠재시장이란 안이한 인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현재형의 주력시장이다. 다행히도 삼성전자를 위시한 일부 기업들은 이미 브라질 시장을 잠재시장에서 주력시장으로 분류해 남미진출 공략기지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경제의 안정과 성장, 향후 브라질 경제의 도약 가능성에 비추어볼 때 브라질 경제는 과거의 불안정하고 주기적인 특성에서 탈피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브라질 경제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단기적 이익 추구형의 진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과 함께 성장해 간다는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통합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해 종전 현지 내수시장 공략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우회진출 및 제3국 시장진출을 겨냥한 투자진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출범이나 EU-MERCOSUR간 FTA를 대비해 기존의 단순한 현지 시장확보형 투자 형태에서 벗어나 인접시장 진출이나 세계 시장을 겨냥한 효율성 추구형 투자로도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브라질 시장은 문화적, 지리적 거리감과 불안정한 브라질 경제의 특성 때문에 일부 대 기업을 제외한 우리 중소기업의 브라질 시장에 대한 진출은 거의 부재했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의 경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 간의 소극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브라질 시장에 대한 과감한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단독 진출의 경우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는 바, 우선적으로는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나 협력업체와의 동반진출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브라질의 유망산업 및 유망진출 분야는 자원시장, 항공기 시장, 특히 중소형 항공기 부문, 농업시장, 자동차 시장 등이 핵심 진출 분야로 지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원시장이 가장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다. 브라질의 자원개발 사업은 국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산업 내 경쟁

관계도 크지 않아 투자매력도가 매우 양호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금, 구리, 다이아몬드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의 브라질 철강원료 생산회사, SK의 브라질 캠퍼스 해상광구 참여가 이 분야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는 항공기 시장이다. 브라질의 중소형 항공기 분야는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허브를 구상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체 중소형 비행기 수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중소형 항공기 기술개발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 번째는 농업부문에 진출하는 것이다. 브라질은 옥수수, 대두, 소맥 부문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 자리를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무역부문에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농기구 도입이 크게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시장이다. 지금 현재 포드, 폴크스바겐, GM, 피아트 등이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관세율이 높아 진출이 쉽지 않다. 하지만 관세율 인하 등 무역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유망하다.

## (2) 러시아

한국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교 수립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진출이 꾸준히 늘어났다. 이제는 어지간한 러시아 도시에 한국인 없는 곳이 없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한국 제품이 파고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특히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자제품은 러시아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여, 대부분의 러시아인 가정에 TV나 청소기 등 한국산 전자제품이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기본으로 있을 정도이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 자동차시장에 한국 브랜드 돌풍이 불고 있어 현대 자동차는 작년 외국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초코파이, 도시락 라면, 각종 스낵류 등 한국 식품의 진출도 괄목할 만하다.

물론 위에 언급한 품목들은 대기업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사실 러시아는 한국인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신시장이다. 러시아어도 낯설고 문화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꾸준한 시장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기회의 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들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 시장의 매력을 맛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시장은,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아직 낯설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큰 흐름부터 익혀나가면서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첫째, 러시아는 단일 시장이 아니다. 러시아는 분명 한 나라지만 위낙 면적이 넓다 보니 지역에 따라 시장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크게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시베리아 지역, 극동지역으로 구분되며 기본적 공통점은 있지만 지역별 선호도와 유행의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시장 공략법을 달리해야 한다.

둘째, 가격이 싸다는 점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고가라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러시아 시장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은 그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싸고 조악한 중국 제품에 이미 신물을 느끼고 있으며, 한번 구입할 때 양질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러시아 비즈니스는 face to face 전략이 필요하다. 러시아 사람들은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한다. 전화상으로 잘 안 풀리던 문제들이 직접 만나 얘기를 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비즈니스 방법이다.

넷째, 노동집약적 산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항목은 현지에 중소규모 투자를 하려는 업체들이 주의 깊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는 임금이 이미 월 500달러를 넘는다. 지방도시 역시, 양질의 노동력이 있긴 하지만, 저렴한 임금이 통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이다. 또 최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 노동직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 중소규모 공장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잠재적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3) 인도

우리나라의 2006년 1월~4월간 대인도 수출은 17억8734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보다 32.9%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인도는 우리의 제8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기계류 등이며 인도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 등 기계류, 기계플랜트 수요가 많아 당분간 수출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인도 수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도인의 상술에서 유래되는 측면이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인도 수출 마진율은 여타 국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 한국 및 서구 기업의 일반적 평가이다. 이것은 인도 자체가 가격에 매우 민감한 대표적인 '가격시장'이라는 점에 원인이 있겠지만, 인도인들의 상술과 협상 과정에서 단 한 푼이라도 가격을 낮추려는 집요함도 원인일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인도 바이어의 경우 장기적 거래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 및 상호 신뢰성 측면 보다는 단기적 이익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오래된 거래선 보다 일시 양호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신규 공급선이 있을 경우, 이를 손쉽게 바꾸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비즈니스 관행과 정반대로 잘 대비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셋째,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 및 여타 서구계 기업이 인도 내 사업이 다른 나라보다 어렵다고 하는 주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 및 합작 파트너간 상호분쟁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D/A, D/P조건의 거래는 대금지체, 미지급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매우 높은 점 필히 주의 요망되는 사항이다.

넷째,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처음 소액이라는 이유로 조금씩 신용을 제공하게 되면 일정시간 이후에 신용 때문에 바이어에게 계속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 등을 명분으로 신용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결제조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 거래의 경우 예외 없이 At-Sight L/C가 필수적이다. L/C 조건으로 수년간 협조적인 관계가 지속되다가도 D/A 등 결제조건의 변경 후 대금 송금 지연과 중단 등의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여섯째, 인도 내 시장개척을 위한 Agent 선정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을 커버하는 독점권 부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재 판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국토가 매우 넓은데다 유통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권이 동서남북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에이전트의 역량을 확인할 때까지는 특정지역 예컨대, 뉴델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등으로 영역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이후 성과를 보아가면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많은 수출기업 등이 인콰이어리 상호회신 및 출장 상담 후 바로 거래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그것이 최종 거래로 연결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며 이것이 상호 협상력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여덟째, 인도업체는 처음 관심을 보인 이후 정작 거래계약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가격, 품질 등을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1차적인 관심과 협의로 곧 계약이 될 것으로 속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도는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은 우리의 제 12위 투자대상국이다. 인도 투자는 주로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 졌으며 최근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였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인도 투자진출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리스크이며, 일반적으로 인도기업과 합작투자는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사항, 전력 및 용수 등 인프라 미비에 대한 비용, 유통 및 관리비용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사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현지화로서 얼마만큼 현지화에 성공하는가가 인도 투자진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예로 백색가전 분야를 살펴보면 LG, Samsung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 Thompson, Philips, Whirlpool, Electronix 등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자동차업계에서도 혼다, 현대 등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 Fiat, GM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업계의 경우도 피자헛, 맥도널드는 눈부신 성장을 기록한 반면 KFC는 첫 시장진출에 실패하고 철수한 후에 최근에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즉, LG전자가 크리켓과 음악을 좋아하는 인도인들 특성에 맞도록 크리켓 게임기능을 TV에 추가하고 중저음용 우퍼를 장착한 사례 그리고 피자헛이나 맥도널드가 메뉴를 적극적으로 현지화한 사례처럼 인도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사내 인력의 현지화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부품 및 소재의 현지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의 경우 상트로와 엑센트의 현지부품 조달비율은 90%를 넘는다. 이 밖에도 인도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매우 오른 상태이므로 입지선정이나 조세 관련 사항들을 주의해야 한다.

#### (4) 중국

중국의 경우는 이미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경쟁이 극심한 시장이다. 즉,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의 고도성장을 의심하지 않고 중국으로 진출해 있고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략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상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하겠다.

다만 중국의 경우 거대 인구, 열악한 물류 여건, 취약한 사회보장 등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소비재시장, 물류시장, 보험시장 등이 특히 유망한 진출분야로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인의 1인당 소득이 급증하면서 소비패턴도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급 슬립형 TV, DVD, 카메라 폰 등은 물론 고급 사치품 소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 내 한국 유명브랜드는 짝퉁(모조품) 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한국 상품의 이미지와 브랜드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아울러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어 항만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물류산업이 연평균 30% 이상 고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게 보다 큰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역시 인프라가 취약하고, 물류업의 낮은 수준, 낙후된 IT 인프라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 점은 우리에게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즉 복합수공체제, 제3자 물류업 등 고도 물류산업 분야가 유망하다.

특히 IT 기술력과 해상운송 분야의 노하우를 보유한 우리나라 전문 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과 경쟁하기 보다는 중국과 연계 강화를 통한 공동 물류시장화를 추구하는 편이 유리하다.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국제교류 활성화의 기본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자립경제의 필요성도 늘어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스스로의 활동역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이나 수용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세계화시대 국제교류 활성화는 개방시대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향후 충청남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서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는 조직, 인력, 지역브랜드, 기반시설 등 국제교류 추진을 기반여건을 들 수 있다.

둘째, 형식적인 국제교류로부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제교류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기관장이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지방 유명인사 등 소수 엘리트 중심의 자매결연 활동으로부터 주민, 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교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분야별로 민간 교류단체를 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해 사전 교류단계부터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류대상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의 경우에는 일본, 미국, 중국 등 3개국 이외의 국가 지방정부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통상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향후 미국, ASEAN, 일본, 중국 등과의 FTA확대에 대비하여 지역기업의 국제통상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 등 통상교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2. 기본방향별 주요 시책

### 1)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첫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충원시 국제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사단체의 전·현직자를 채용하여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나 (외국어 구사)능력을 증시하여 국제교류직, 국제통상직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국제교류·통상관련 업무부서가 전무한 충남에서는 향후 국제교류 및 통상 지원을 위한 계(係)수준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순환보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전문공무원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개방화시대 국제통상의 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통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역의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통상 전담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외연수, 공무원 파견·교환근무 등의 실용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정수준의 공인 외국어수준에 도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무원들의 국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에 관한 의식교육, 정보교육을 기초로 자치단체의 내외부적으로 강연, 국제교류 사례발표, 연수보고대회, 정책토론회, 지역소개 및 연구결과 발표 등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각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의 외국어 교육 확대, 외부의 전문학원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방화, 정보화시대 지역브랜드는 무형의 자산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역브랜드는 지역 유·무형 자산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경쟁력 요인임으로 국제교류를 통해, 그리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육성해야 한다.

셋째,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충남의 경우에도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교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국제교류를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최소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정부나 자치단체 공식적인 예산 항목에 편성하여 매년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셋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호응도 얻고 예산측면에서 부담도 경감할 필요가 있다.

## 2) 생산적 국제교류 확대

생산적인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류대상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류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국제교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도시 선정시 상대 지역과의 유사성·상호보완성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성급한 자매결연 체결보다는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거친 후 상호호혜의 영역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의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하면 민간단체들의 호응을 얻어 국제교류의 실효성과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최근의 세계화는 종전처럼 외교관, 문화인, 정치가, 기업인 등 소수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가 아니다. 어디까지 그 지역의 주민과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그 중심에 서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해야 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민간단체와 연계한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추진할 때 자치단체내의 민간단체간의 자매결연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중소기업과 다양한 NGO 중심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교류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자매결연 도시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전통문화 행사 등에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홈스테이, 통역, 안내 등 교류협력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비용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떠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충남의 경우에는 남호주주(자매결연도시), 캘리포니아주(우호협력도시) 등과 시·군의 경우도 국제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의 공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외국 Home-stay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 자매결연도시의 공교육기관과 Home-stay를 해당국 공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어 연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모국에서 영어통역봉사활동을 원하는 영어권의 교포 청소년에게 공적인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포 청소년에게는 봉사활동의 기회와 모국 인식의 기회를, 충남 청소년에게는 영어학습과 국제감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어권, 중국어권 낙후지역에 공적기관의 연결을 통해 충남 청소년의 국제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청소년 교류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황해권시대를 부응하여 중화권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타 지역 해외교포와의 유대를 증진해야 한다.

셋째, 세계화시대에는 지방외교가 활성화되고 있다. 충남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등 세계 각국의 자치단체와 국제기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광범위한 국제교류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 3. 통상교류 활성화방안

국제통상분야에서 충청남도의 수출은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국제무역에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2006년 상반기 충남 수출품목 가운데 집적회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모니터 등 3개 품목이 총 수출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57.7%에 달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이들 품목은 특정 대기업의 생산품이기 때문에 충남경제가 외부환경에 취약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GRDP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통상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의 통상을 지원하고 수출품목의 다변화도 병행하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첫째, 해외마케팅 지원시책의 방향이다. 통상과 관련하여 도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확대와 업체들의 해외시장경험 축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은 감소하고 있지만, 충남의 해외시장 지원시책은 다다익선의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시장개척이 시장다변화와 종합적인 시장파악에 중점을 두었으

나, 이제는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유사업종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시장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백화점식 업종 선정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의 논리하에 유망업종 중심으로 단일품목화 또는 업종별 클러스터화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장개척단 참여업체와 단체박람회 참가업체의 수출실적을 조사한 결과 시장개척단 보다는 수출은 전년조사시보다 2배 증가한데 비하여 박람회 참가업체의 수출은 7배가 증가하여 단체박람회 참가가 성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수출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수출기업들에게는 신규바이어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해외시장개척단 등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기존방식을 채택하고, 이미 수출시장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수출기업에게는 박람회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시장개척단은 기존의 여러 국가를 순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망상품별로 특화할 수 있는 특정국가를 선택하여 그 국가에서 집중적인 무역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충청남도는 지역중소기업의 무역업무 관련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무역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무역 지원사업과 충남대·한남대 등에서의 사례에 서와 같은 무역인턴제 사업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BRICs국가는 충남기업의 새로운 시장진출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BRICs 국가를 포함해 개도국에 진출 때 대부분의 경우 거시경제 지표와 외국인 투자법 등을 중시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 사회 제도, 대외개방도,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 시스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해야 한다. 여러 가지 진출전략 조합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출확대 전략과 시장접근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수출 확대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유망한 분야는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내구소비재 부문, 정부투자 증가에 따른 IT, 주택,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개발 사업과 자원개발에 대비한 자본재 및 중간재, 기업 투자 증가를 대비한 산업 기계류, 설비 플랜트, 산업용 부품 등의 품목을 중시해야 한다.

투자진출 전략은 각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BRICs 국가의 투자환경은 법, 제도, 사회간접자본, 산업기반 등이 대체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특정지역, 즉 특별경제구역,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수입관세 등의 면제나 감세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4.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와 충남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국제교류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대상의 광범위함으로 분야를 국제교류와 국제통상으로 분류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분석대상의 협소함이다. 국제교류는 민(民)·관(官)이 각각 혹은 협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충청남도의 국제교류도 관 주도의 국제교류와 민·관 협동의 국제교류, 그리고 민 주도의 국제교류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1차적으로는 충청남도, 2차적으로 시·군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동의 국제교류 실태까지도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민·관을 포함한 총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의 미비점이다. 국제교류의 성과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설문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case study성격의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와 국제교류를 다녀온 보다 많은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sampling의 문제는 본 연구의 실태분석의 유의미를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 국제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지역내 기업의 수출애로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인터뷰가 요구되었으나 여건 미비로 실시하지 못하여 보다 생생한 문제점을 추적하는데 본 연구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충청남도 국제교류의 보다 과학적인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추후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기천,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SERI 경제 포커스, 2005.12.
- 경상북도, “2006년 통상진흥 종합계획”, 2006.
- 경상북도, 『지방정부의 해외통상진흥 방안 -경북의 해외통상진흥 시책개발을 중심으로-』, 1996. 5.
- 광주광역시, “2006년 통상진흥시책시행계획”, 2006.
- 권경득,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경남개발39, 경남개발연구원, 1999.7.
- 권영민,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연구 04-27, 한국경제연구원. 2004.
- 권영철 · 최혁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마케팅: 한국의 경상북도와 중국의 허난성 사례를 중심으로”,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발표자료, 2005.
- 김석준 외,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 김주완, “지방자치단체 통상진흥정책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3권 1호, 2001.
- 김판석, “내향적 국제화 과제와 추진전략”, 「지방의 국제화」, 3월호, 2006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998.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한국상품 차별사례」, 2004.12.
- 류재현, “부산광역시 통상정책개발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세계화시대의 통상정책 :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국제통상학회, 1996.
- 류재현, “지방정부통상행정서비스에의 고객서비스론 적용”, 세계통상포럼3, 1995.9.
- 문장순,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 「부산정치학회보」, 제6집, 1999.
- 박성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1. 8.
- 박종수, 「국제통상론」, 동성사, 1990.
- 박변순, 강기천, “한국 통상정책의 재점검”, 삼성경제연구소, 2006.8.

박상준, “경기도: 공격적 국제화”, 「지방의 국제화」, 4월호, 2006

    , “내향적 국제화: 일본 오즈시 사례”, 「지방의 국제화」, 8월호, 2006

백상호 외, 「주요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 제도」,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3.

산업자원부, 「2010년 무역전망 및 정책방향」, 2002.10.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백서」, 2004.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의 중기비전과 정책과제」, 중기 무역진흥방향 모색을 위한 산·학·연·정 세미나, 2002.

송희영, “한·일 양국의 통상정책과 FTA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1호, 2005.

신경구, “내향적 국제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의 국제화」, 1월호, 2006

신승관, “우리나라 및 주요국 환율추이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주간무역, 2006.6.

심익섭, 『한국지방부 외교론』, 서울: 오름출판사,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간 국제유가 시황 및 시장동향(78호)”, 2006.8.

오해섭,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의 역할”, 「지방의 국제화」, 11월호, 2004.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5.12.

윤기관 외,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2003,

이준규·나수엽, “2006년 세계경제 전망 및 통상환경”,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05.12.

이승재, “지방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대책”, 「지방의 국제화」, 4월호, 2005.

이영권, “국제화 시대의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지방의 국제화」, 8월호, 2005.

임성훈, 「동북아시아 전략적 외국인투자 마케팅」, 학현사, 2004.

임영식, “한·일 우정의해 2005를 통해서본 한·일 자치단체 교류”, 「지방의 국제화」, 2월호, 2005

장병구, “외국의 자치단체 교류 현황”, 「한세정책」, 4권 1호, 1995

전영평, 황정홍, “일본시네마현의 국제교류”, 「행정과정정책」, 4권 1호, 1998

조석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지방의 국제화」, 10월호, 2005

주낙영,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국제협력 증진”, 「지방의 국제화」, 6월호, 2005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경제·통상교류 실무요령」, 1999. 11.

정돈취엔, “한중일 자매도시 발전 보고서”, 「지방의 국제화」, 9월호, 2006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2006년도 업무계획”.

([http://www.chungnam.net/content/cnnet/poli/04/poli\\_04\\_03.html](http://www.chungnam.net/content/cnnet/poli/04/poli_04_03.html))

충청남도, “2005년 충청남도 수출입 현황”, 2006.3.

충청남도, 「2005년 도정백서」, 2005.9.

충청북도, 「2000년 국제통상업무편람」, 2000.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 통상지원팀, 「2005년 10대 대외통상 환경 : 무역업계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통상보고서 2005-1, 2005.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팀, 「2005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무역연구 06-4, 2006.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6년 상반기 대전·충청남도 수출입 동향분석”, 2006.7.19

한국무역협회, 무역리뷰, 2006.5.15.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의 비전」, 2002.7.

경기도, <http://www.gg.go.kr>

경상북도, <http://www.gyeongbuk.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산업자원부 “무역정책비전”, <http://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http://www.klafir.or.kr>

충청남도, <http://www.chungnam.net>

WTO, <http://www.wto.org>



## 〈부록 1〉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 1. 미국

#### (1) 개관

전통적으로 미국은 국가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19개의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이 약 150여개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주정부가 이와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출지원을 총괄하거나 조정 없이 대부분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지난 1990년부터는 이의 범국가적 통합조정을 위해 무역진흥조정위원회 (T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TPCC)를 창설, 상무장관과 수출입은행장이 연방 차원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는

- 행정부처: 상무성, 국무성, 재무성, 내무성, 농무성, 노동성, 운수성, 에너지성 등
- 대통령직속: USTR, OMB(예산관리국), CEA(대통령경제자문위)
- 기타기구: SBA(중소기업청), EPA(환경청), AID(국제개발국), EXIM Bank(수출입은행), OPIC(해외민간투자공사), USTDA(무역개발처), USIA(해외공보처) 등이 있다.

각종 수출지원제도의 주요 기능으로는

- 수출정보, 국별·지역별 시장정보 제공
- 전문시장(technical market) 지원
- 국제 거래촉진(international trade contacts)
- 수출금융, 보험, 투자 및 타당성 조사
- 농산물 수출 지원 등이 있다.

미국의 주요 수출지원제도 또는 프로그램에는,

- 무역정보센터(Trade Information Center, TIC)
- 미 수출지원센터(US Export Assistance Centers)
- Market Development Cooperator Program

- Matchmaker Trade Delegation (상무성 및 각국 공관 주도)
- National Trade Data Bank (NTDB, 상무성 CD-ROM)
- Gold Key Service (US & Foreign Commercial Service가 담당)
- 수출상담,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상무성산하 ITA, US & FCS의 세계 66개국 파견 상무관 등)
- Market Promotion Program(미 농무성, 해외 15개국 농무관) 등이 있다.

## (2)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 The Office of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중소기업개발센터는 미 중소기업청(SBA)이 민간, 교육기관, 연방·주·지방정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에 경영상담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자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창업 준비 혹은 기존 사업 확대를 고려 중이지만 민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소기업개발센터(SBDC)를 통해 중소기업에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SBA는 중소기업이 연방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혁신개발(SBI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기업,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기업, 퇴역군인기업, 여성 및 장애인기업에는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SBDC 운영자금은 SBA가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나머지는 주정부·민간기구·지역 상공회의소·주경제개발공사(EDC)·대학·직업 및 기술학교 등에서 충당하고 있다.

중소기업개발센터는 각 주에 하나 이상(텍사스 4개, 캘리포니아 6개 등), 전국적으로 63개의 선도 SBDC를 중심으로 1,100개 이상의 서비스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각 주에는 선도 SBDC가 서브센터(subcenter) 및 위성분소(satellite location)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SBDC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한다. 서브센터는 대학, 지역대학, 직업학교, 기술학교, 상공회의소, 경제개발공사 등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SBDC의 중심 기능을 하는 것은 교수와 대학원생 등 인적자원과 우수한 연구시설 등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BDC는 1980년 이후 기업가 1,000만 명에게 상담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3) 일리노이 주정부의 '일리노이 글로벌 파트너십(IGP)'

일리노이주를 비롯하여 미국의 주정부들은 수출 증대를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앙정부가 각 주에 대해 수출업무 지원을 줄이면서 주정부차원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5년 7월 13일자로 미국 일리노이주가 두달전 외교적 현안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각국 영사를 초청해 발표회를 가졌으며, 이는 주정부가 지역수출 증진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도한 바 있다.

일리노이주의 수출규모는 2004년 14%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4%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인근 위스콘신주와 아이오와주가 2000년과 비교해 21%, 41% 각각 수출 신장세를 보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2005년 7월 민관협력의 '일리노이 글로벌 파트너십(Illinois Global Partnership; IGP)' 이란 수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IGP는 일리노이주가 콩,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과 기계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역과 관광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이미지 쇄신작업에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GP의 미션은 민관의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협력적인 국제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일리노이를 국제상거래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시장에서 IGP는 일리노이주의 중공업, 농업, 운송, 관광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첨단기술, 금융 및 전문 서비스, 세계수준의 연구 및 교육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우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7월 Rod Blagojevich 일리노이 주지사는 IGP에 국제경제개발, 무역, 투자, 관광, 농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IGP는 방대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 우선 일리노이주 농업국의 국제마케팅 기능과 종사자, 해외무역사무소를 조직으로 흡수하였으며, La Raza Newspaper, The Argentin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Charter One Bank, Surge Capital, EuroChicago, U.S. Export Assistance Center 등의 민관파트너들이 협력하고 있다.

IGP의 주요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월레포럼, 최고경영자들의 국내외 파견이나 출장 지원, 다른 주 의원들의 일리노이 여행일정 조정, 국제기업들의 무역전시회 주최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통상국, 관광국 등의 주정부 부서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국제무역과 투자의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
- 대규모 일리노이 주정부 사업에 국제적인 참여 유치
- 일리노이 기업들의 국제무역 참여 및 확대 지원
- 일리노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
- 일리노이 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새로운 국제마케팅 채널 개척

## 2. 일본

### (1) JAPAN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일본 중소기업청)

전국, 나아가서 해외의 시장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지역에서 시작된 브랜드파워(JAPAN브랜드) 육성·강화를 지향한 신사업 도전을 지원한다. 아울러 더욱 활력이 넘치는 도전을 위한 움직임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JAPAN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전국, 나아가서 해외 마케팅에서도 통용되는 높은 평가를 확립해야 할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이 단독 혹은 연계하여 지역의 기업 등을 코디네이터 하면서 실시하는 시장조사, 전문가 초빙, 기획, 신상품개발·평가, 디자인 개발·평가, 국내·외의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활동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2) 중소기업과 해외기업과의 중개(일본 중소기업청)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로의 전개 의욕이 넘치는 중견·중소기업자와 해외기업과의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총괄하는 지방공공

단체 및 업체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으로는 해외의 유망 시장이나 산업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상품 해외조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원을 통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업종이나 지역 등의 대상을 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조사경비의 일부에는 보조금이 적용된다.

### (3) 일본과 대만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정보제공사업(일본 중소기업청)

대만에서 비즈니스 전개를 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만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등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과의 비즈니스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첫째, 정보제공사업으로 (재)교류협회 홈페이지상에서는 국교가 없는 대만간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하여 대만의 경제동향 및 대만기업의 정보, 대만기업과의 비즈니스 얼라이언스(Business Alliance)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비즈니스 얼라이언스(Business Alliance)촉진사업으로 일본·대만기업간의 비즈니스 얼라이언스(연계)에 관한 정보제공, 조언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만기업과의 매칭교류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최안내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추진사업으로 인터넷상에 일본기업과 대만기업과의 비즈니스교류지원사이트인 「일본·대만 비즈니스 스테이션」을 개설하여, 비즈니스 매칭을 희망하고 있는 대만기업에 대한 정보 및 대만제품 관련 소개, 일본 중소기업제품의 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이트는 언어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일본어로 대만기업으로의 접근(Approach)이 가능하며, 반대로 자사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흥미를 가진 대만기업으로부터의 비즈니스 매칭 접근(Approach)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계기 마련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 (4) 해외현지법인으로의 전문가 파견제도(일본 중소기업청)

해외현지법인이나 상거래관계에 있는 지방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개선 향상 등을 지원한다. 국제화 추진을 도모하는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의 업종은 파견대상국의 산업발전에 공헌하는 업종으로 한다. 또한, 파견대상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하지 않는다.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전문가 파견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거나 상거래관계에 있는 지방기업에 대하여 일본에서 전문능력을 지닌 중소기업청 등록전문가를 파견하고, 그 파견경비의 3분의 2를 중소기업청이 부담한다. 파견기간은 1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한다. 파견 신청기업은 일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 파견 기업은 일본 중소기업이 출자하거나 또는 상거래가 있는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의 지도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전업종에 걸친 기술을 지도하는 개별전문가파견사업과 복수의 일본현지법인 등에 대해 공통의 기초기술 및 관리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을 지도하는 순회지도형전문가파견사업 등이 있다.

둘째, 활력 넘치는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일본 대학생 등의 젊은 인재를 인턴쉽을 통해 일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일본 중소기업의 국제전개에 이바지할 새로운 인재확보 및 상호간의 기술·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해외인턴쉽파견사업이 있다. 파견경비의 3분의 2를 중소기업청이 부담하며, 파견기간은 3주간 정도이다.

#### (5) 중소기업 해외전개 지원사업(일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해외전개 등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에 의한 해외비즈니스 관련 어드바이스 및 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자의 해외투자나 국제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비즈니스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국제화지원 어드바이저」가 상시 무료상담을 실시하는 국제화지원 어드바이스 사업이다. 어드바이스를 실시하는 장소는 동경 또는 오사카사무소이지만 안전에 따라 어드바이저의 파견(출장 어드바이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 따라서는 전화나 이메일로도 상담을 받고 있다. 투자대상국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어드바이저가 현지까지 동행하여 상세한 조언을 하는 「현지 어드바이저제도」도 있다.

둘째, 국제전개워크숍으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도도부현등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이 공동기획하여 해외 현지의 투자환경이나 해외전개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국제전개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셋째, 전문가에 의한 해외전개에 도움이 되는 최신 경영정보 및 진출사례 등을 제공하는 등 국제화를 위한 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6) 중소기업 국제화추진 특별사업(일본 중소기업청)

경제교류의 국제화 및 중소기업자의 해외와의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또는 상공관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Local to Local 산업교류사업과 창업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국제화지원 네트워크사업으로 구분된다.

Local to Local 산업교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국제화 프로젝트와 유기적 연계를 피하면서 일본의 특정지역과 해외의 특정지역과의 산업교류를 종래 이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며, 신규산업의 창출이나 지역특화산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를 지향한다. 본 사업에서는 해외조사, 사절단 파견,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기업교류회·상담회 개최 등을 실시한다. 예컨대 「Medical valley 구상」을 제창하고 있는 미에현(三重縣)과 독일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를 Local to Local 산업교류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 교류를 통해 양지역 기업간의 연구·기술제휴, 더 나아가서는 기업과 연구소의 對日투자 및 대외투자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벤처국제화지원 네트워크사업에서는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에서의 창업, 해외벤처기업 등과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포지움 및 세미나, 기술전문가 파견, 전시·상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미의 인큐베이터(벤처비즈니스를 궤도에 오르기까지의 시설·기기·자금 등의 원조를 하는 조직)내에서 활동지원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큐베이터 매니저를 미국식 기업환경이 정비되어 있는 국가로 파견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벤처 인큐베이터 in USA ~미국진출기업지원프로그램~」에서는 과거에 실리콘밸리(BIC)에 15개사, 시카고(TIC)에 5개사, 워싱턴(IA)에 3개사가 합격하여 JETRO(일본 무역 진흥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 (7) 일본 東京都의 중소제조업 동남아진출 지원사례

일본의 동경도는 중소제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주재한 경험이 있는 현역 은행원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외에 현지의 상습관을 잘 아는 전직 상사맨 등을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있다.

해외진출은 각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재육성과 현지의 정보제공에 대한 요청이 많아 지원체제를 강구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동경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은 베트남, 타이 등 주로 동남아시아의 국가이다. 이는 중국의 경우 이미 많은 기업이 진출해서 노하우가 민간에게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베트남 등에 체재경험이 있는 현역 은행원과 상사맨을 강사로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실패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해외진출을 위한 어드바이저로서 전직 상사맨 등을 대상으로 「해외전개추진원」 2명을 모집하여 동경도의 중소기업진흥공사에 2006년도부터 배치하고 있다. 동 추진원은 동남아시아에 기업이 진출할 때에 동행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 행정기관과의 협상과 행정절차이행, 파트너기업 발굴 등에 보좌역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영문 카다로그 표기의 디자인 지도와 현지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 등 세심한 부분까지 지도하고 조력한다.

동경도는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진출에 실패하는 기업이 많아 공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동경도의 산업노동국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경도에서는 2005년부터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동경도내 중소기업의 상품전시상담회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서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제휴 등에 비즈니스교류의 기회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표 35 〉 동경도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애로사항(2003년, 동경도 조사)

| 진출할 당시   | 진출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정보에 밝은 전문인력 부족 (26.8%)</li> <li>- 연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19.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육성의 곤란(36.6%)</li> <li>- 상습관의 차이에 의한 분쟁(29.3%)</li> <li>- 빈번한 제도변경(15.9%)</li> <li>- 지적재산권의 침해(7.3%)</li> </ul> |

#### (8) 일본 오이타현의 국제무역지원 어시스턴트 활용사업

Internet의 보급과 동시에 국제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하는 가운데 현재 기업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Global적인 기업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이타현에서는



해외의 무역정보나 해외와의 거래경험이 부족한 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오이타대학, APU, NBU, 벳부대학 등 현내의 대학·대학원의 유학생을 「국제무역지원 Assistant」로 활용, Assistant 대학에서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여 거래상대국의 정보제공이나 어학지원 등을 통해 현내기업의 해외거래 촉진과 국제화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sup>15)</sup>

이 사업을 통해서는 기업의 Assistant 활용경비의 일부를 보조함과 동시에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유학생에 대하여는 무역실무연수회(년 4회) 및 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연락회(년 4회) 등을 실시한다. 오이타현에서는 이 제도가 현내 무역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장차 일본과 자신들의 출신국간의 무역전문가로서 양국의 교역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이타현 홈페이지(<http://www.pref.oita.jp/14300/assistant/>) 참조.



## 〈부록 2〉 설문조사

###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매년 도청 실국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기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국제통상과에서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의뢰하셔서 본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청남도청의 여건과 지금까지의 국제교류실적에 대한 현황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답내용은 일괄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자료로만 쓰여질 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이나 응답내용을 전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6. 10.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정보팀장 성태규

※ 다음의 설문항목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곳의 ( )안에 “○”표 또는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교육정도는?

- (1) ( ) 중졸이하                      (2) ( ) 고졸                      (3) ( ) 전문대졸  
(4) ( ) 대졸                              (5) ( ) 대학원이상

2. 국제교류·통상 관련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_\_\_\_\_ 년                              개월

3. 총 근무년수는?

\_\_\_\_\_ 년                              개월

4.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귀하의 외국어 수준은?

- (1) 영어 : 상( ), 중( ), 하( ),  
(2) 중국어 : 상( ), 중( ), 하( ),  
(3) 일본어 : 상( ), 중( ), 하( )  
(4) 기 타 :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은?

- (1) ( ) 지역경제의 활성화    (2) ( ) 국가외교의 보완  
(3) ( ) 지방행정 각 부나의 선진제도, 기술도입 수요증가  
(4) ( ) 국제감각이 풍부한 인재발굴 및 육성  
(5) ( ) 국제사회에서 지역이미지 제고  
(6) 기 타 ( )

6. 외국의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를 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 (1) (    ) 지리적 근접성                      (2) (    ) 지역의 산업구조
- (3) (    ) 자연환경, 인구 등 지역여건      (4) (    ) 정치·행정적 유사성
- (5) (    ) 역사·문화적 배경                  (6) (    ) 심리적 친밀감
- (7) (    ) 기타 \_\_\_\_\_

7. 충청남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국제교류를 두가지만 든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1) (    )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교육      (2) (    ) 학술교류
- (3) (    ) 문화·관광                              (4) (    ) 스포츠교류
- (5) (    ) 청소년 교류                              (6) (    ) 경제교류
- (7) 기    타 (                                      )

8.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시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정비되어야 할 것은?

- (1) (    ) 외국어와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 및 인력확충
- (2) (    ) 자치단체내 연락·조정체제 정비
- (3) (    ) 자치단체내 해외관계 자료실 정비
- (4) (    ) 외국인을 위한 숙박시설의 정비
- (5) (    ) 외국인을 위한 홍보지 발행
- (6) 기    타 (                                      )

9. 충청남도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을 두가지만 든다면?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1) (    ) 예산의 부족                              (2) (    ) 주민들의 무관심
- (3) (    ) 상대 자치단체의 대응둔화      (4) (    ) 언어소통의 문제
- (5) (    ) 중앙정부의 비협조                      (6) (    ) 공무원들의 국제인식 부족

10. 귀하께서는 충청남도의 국제교류의 원활화를 위하여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필요하다고 보시는 경우, 11번 질문으로 이동)

- (1) (     ) 전적으로 필요                  (2) (     ) 대체로 필요  
 (3) (     ) 그저 그렇다                  (4) (     ) 대체로 불필요  
 (5) (     ) 전적으로 불필요

11. 귀하께서는 어떤 방법이 충청남도의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1) (     )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2) (     ) 국제교류기금 확대  
(3) (     ) 민간단체의 후원금 조성    (4) (     )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 조성  
(5) (     ) 자치단체의 예산 중 일정비율의 의무적 편성  
(6) (     ) 기타 \_\_\_\_\_

12. 충청남도의 국제교류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 (1) (     ) 매우 양호  
 (2) (     ) 대체로 양호  
 (3) (     ) 그저 그렇다  
 (4) (     ) 대체로 불량  
 (5) (     ) 매우 불량

13. 충청남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외국 국가를 우선순위 순서로 3국가를 든다면?

- (1)
(2)
(3)

14. 위의 국가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15. 귀하께서는 해외연수 또는 해외 파견근무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     ) 있다
- (2) (     ) 없다

16.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근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1) (     ) 전적으로 찬성                      (2) (     ) 대체로 찬성  
 (3) (     ) 그저 그렇다                        (4) (     ) 대체로 반대  
 (5) (     ) 전적으로 반대

17. 만약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 (1) (        )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2) (        ) 지역에서 필요한 국제정보수집에 유리
- (3) (        ) 지방행정 각 분야의 선진제도 기술도입
- (4) (        ) 해외 연수를 통한 견문 및 시야의 확대
- (5) (        ) 국가외교의 보완
- (6) 기      타 (                          )

18. 만약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 (1) (     ) 지역경제발전에 별 도움이 안됨
- (2) (     ) 교류가 형식에만 그치는 경우 예산의 낭비 초래
- (3) (     ) 국제교류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독점되어 있기 때문
- (4) (     ) 잘못될 경우 국가외교의 지장초래
- (5) (     )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 (6) 기        타 (                                  )

19. 귀하께서는 생각하기에 충청남도 공무원의 국제교류실태는?

- (1) (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2) (     )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3) (     ) 그저 그렇다                      4) (     )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5) (     )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1) (     ) 지방공무원의 참여기회 제한
- (2) (     ) 자치단체별로 산발적, 개별적 출장으로 동일기관 중복 방문
- (3) (     ) 외교채널을 통한 충분한 사전교섭이 없이 방문
- (4) (     ) 사전 예비지식이 없는 무계획적인 해외 활동
- (5) (     ) 국외여행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대외 공신력 실추
- (6) 기      타 (                          )

(1) (     )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2) (     )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3) (     ) 그저 그렇다                      (4) (     )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5) (     )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1) (     ) 매우 필요
- (2) (     ) 대체로 필요
- (3) (     ) 그저 그렇다
- (4) (     ) 대체로 불필요
- (5) (     ) 매우 불필요

(1) (     )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     )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집 필 자 ■

연 구 책 임 · 성태규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 문희철 충남대학교 교수  
연구자문 의원 · 성정경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

충발연 2006-02 · 충청남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글쓴이 · 성태규 · 문희철 · 정연정 · 성정경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6년 10월 31일 / 발행 · 2006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301-745)

전화 · 042-820-1141(자치행정연구팀)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89552-72-7 93030

<http://www.cdi.re.kr>

©2006.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